

2018 대전문학관  
문학교육 프로그램

# 작품집



2018 대전문화관  
문학교육 프로그램

# 작품집

## 발간사

박만우	007
-----	-----

---

## 초대작품

강태근	신의 미소	010
안현심	첫 사내	017
양애경	번비	018
박송이	푸른 낙엽	020
이중세	쇼와(昭和) 12년, 실화	021

---

## 성인 대상 창작수업 / 시

강수원	상사화   풍경화	050
고경미	동백꽃   사모	052
김만기	가을이 오네   무궁화	055
김순희	날파리증	058
김용현	옥동 댁   쓰는 시 말고 사는 시	059
김용순	동창생	063
김재형	질구지	064
김종익	사마귀 사랑   어떤 삶	066
박은우	개와 늑대의 시간   모녀 三代	069
박인숙	40℃	073
박정열	호두알   왜냐하면	075
박종숙	건강 염려증	079
박철하	왕비가 된 누나	081
백옥자	내 안의 고적   이태석 신부님께	083
안명숙	나의 살던 집   상처받은 용	087
안시찬	전문병원	094
양순례	그날   미래의 거울	096
엄정인	어린이 현장   축제의 날	099
윤옥희	자라는 돌   초가을	105
이미순	생선 비늘   모화역	107
이영숙	몽당연필   서리꽃	110
임형선	술 아듀!	113

---

---

장미순	그랜드 사우나   아버지의 자존심	115
전이식	시산제를 지내고	119
주경숙	황혼	123
주종헌	꽃비   돌 담	125
천상인	시간이 하는 일   허망한 복수	127
천영애	이사   목주	129
최재문	가을   고향	131
최진숙	목소리	133
하재순	죽음 준비 없이 보내려니   우물이 있던 곳	134
홍종승	백두산 천지에서   늘 ~이라는 말은	138

---

#### 성인 대상 창작수업 / 산문

김순희	플라타너스	144
김용순	팬찮다	150
박인숙	가을 엘레지	153
박종숙	0번 할매 버스	161
안시찬	첫사랑	164
전갑재	가을 여행	167
전이식	태양방아	170

---

#### 학생 대상 창작수업 / 시

김정원	그 時   묵힌다는 것은 아니던가	176
신민섭	한편시   인생을 팔기 좋은 계절 인생을 사기 좋은 계절	178
신영빈	양산은 아니다	182
이현정	유부 초밥   안녕	183
장은주	그때 그 시절   생각한 너	186
허진영	헤진 주머니 안에 봄이 있다   먼지가 낀다는 것	188

---

#### 학생 대상 창작수업 / 산문

신영빈	끝	192
-----	---	-----

---

#### 2018 대전문학관 대전문학기행 / 소감문

채동선	무지렁이의 문학기행	202
-----	------------	-----

---



● 발간사

도처가 연둣빛으로 물들던 봄을 지나,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입니다.

계절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대전문화관에서는 많은 분들이 작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쓰고 지웠던 문장들은 갓 세수를 마치고 바라본 거울 속의 나처럼 말깁습니다. 반짝입니다. 곧 꿈을 가진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작품집으로 세상에 말을 걸어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깃든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로 세상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소중한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 보냈던 고민과 인내의 시간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대전문화관에서 여러분의 작품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 만 우



초  
대  
작  
품

---

강태근

안현심

양애경

박송이

이중세

# 신의 미소

강태근

차는 철흑의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비포장의 산길이어서 차가 요동을 칠 때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몹시 흔들렸다. 낡은 9인승 봉고차라 도로가 패인 곳에서는 차체가 온통 뒤틀리는 듯한 신음소리를 냈다.

승객은 운전수를 포함해서 모두 여섯 명이었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십대의 목사와 삼십대의 여전도사, 고향에 들렀다가 이른 새벽 출근을 위해 서둘러 도시로 가는 십대 후반의 공장소녀, 염주를 길게 가슴까지 늘어뜨린 오십대의 스님 그리고 국회의원에 두 번 출마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지방의원 선거에라도 나서볼 공량으로 시골 사랑방까지 들쭉시고 다니며 고군분투하는 사십대의 정치 낙방거사가 승객의 전부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이 봉고차의 정식 승객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제가끔 사정이 닿는 곳에서 산골의 막 버스를 타고 오다가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두어 시간 동안이나 길가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중

운 좋게 마침 지나가는 봉고차를 만난 사람들이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저 젊은 양반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꼼짝없이 반쯤 동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거사가 맞은편에 앉은 목사의 어깨 너머로 운전수를 턱으로 가리키며 웅변하듯 큰소리로 말했다. 맨 뒷좌석에는 김장용 채소 같은 짐이 가득 실려 있어서 승객들은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풍채 좋은 목사와 여전도사가 운전수와 등을 대고 앉고 그 앞에 정치거사와 스님 그리고 출입문 쪽으로 공장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가 사랑이 깊으신 주님의 뜻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가 참으로 감사해서 못 견디겠다는 어조로 말하자 여전도사가 얼른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멘!”하고 응답하였다. 정치거사는 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스님에게 선심을 베풀었다.

“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뜻이구요!”

스님의 일그러진 얼굴이 펴지자 대신 이번에는 목사와 여전도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차 안이 어두워서 잘 살필 수는 없지만 여전도사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갳게 달아오르기라도 하는지, 감정을 애써 자제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관대 아무 죄도 없이 피와 살을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저희 죄를 대속해 주셨겠습니까? 다아, 주님의 넓고도 깊으신 사랑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고 이번에는 스님이 언성을 높였다.

“버려지만도 못한 불쌍한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 왕좌를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설산고행을 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은 그보다 못하시다는 말씀이요? 도대체가 나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가 없소이다. 남의 종교는 무조건 배타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또 깊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사탄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처사와 심보를 말이오!”

목사가 잘 훈련된 세련된 미소를 띠고 스님을 지긋이 바라보았다.

“아, 아! 너무 과민하시군요! 전 적어도 그렇게 편협한 목사는 아닙니다. 불교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작은 등불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류의 큰 스승과 구세주는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그거 아니요? 누가 큰 스승이고 구세주란 말이요? 누구 맘대로 큰 등불이고 작은 등불이고를 가린단 말이요?”

“아, 아! 고정들 하시지요. 큰 등이건 작은 등이건 다야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형편대로 사는 거니까…….”

정치거사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일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답게 중재하고 나섰다.

“제가 알기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업으로 삼으셨던 분들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이고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좀 더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갑시다! 어때요? 안 그래요? 아가씨?”

정치거사가 스님 옆에 앉아 있는 소녀를 돌아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소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이었다. 소녀는 피곤했다. 그리고 걱정스러웠다. 빗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고향의 늙으신 부모님이, 대학 진학을 앞둔 재주덩어리 동생의 학비가, 새벽부

터 시달려야 하는 내일의 고된 하루가.

“아가씨,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아가씨를 사랑하십니다. 아가씨를 진실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꼭 한 번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세요.”

소녀의 귀에는 여전도사의 말도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피곤할 따름이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다만 몇 십분이라도 잠을 자 두는 것이었다. 소녀는 눈을 감았다. 앞에서 승객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십대의 운전수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영세한 가방 공장에서 잡부 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시달려야 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다. 오늘도 고된 근무를 마치고 벌써 석 달째 병석에 누워 계신 고향의 홀어머니를 뵙고 밤늦게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에게 당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는 방 한 칸이었다.

“이번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거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화제를 바꾸었다. 시의에 밝은 정치거사의 계산은 적중했다. 목사는 목사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수라 지옥 같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한탄했다. 목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의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필요한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고, 여전도사가 역시 아멘으로 화답했다. 스님은 스님대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같은 의병 정신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거사는 그들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문제는 국민을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희생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위대한 지도자론'을 폈다.

그때였다. 차가 그들의 모처럼 부드럽게 진행되는 대화처럼,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 한참 포장된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갑자기 차 안으로 강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국도 한가운데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들이 탄 봉고차가 양철판 긁는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그리고 승용차 안에서 세 사나이가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왔다.

모든 것은 번개 불에 콩을 구워 먹는 것보다도 더 빨리,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한 사나이가 운전석 옆 유리창을 부수고 재빨리 차 안으로 올라가 운전수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댔다. 나머지 두 사나이는 날이 잘 선 생선 회칼을 들고 뒷문으로 올라와 승객들을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옆드리게 했다. 누구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엄청난 세력 앞에 항거하지 못했다.

아니, 처음 목사와 스님과 정치거사가 저마다 특유의 점잖음을 과시하면서 사랑과 자비와 인도주의를 애소했다. 그러나 셋 중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가장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치자 이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 새끼들! 뱃대기에서 빨랫줄이 기어 나와야 정신을 차리겠어! 새끼들 땡땡이 중놈하고 예수쟁이 아냐! 밥맛 제깐 김에 확 굶어 버리겠어!”

사나이들은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거나 한 것처럼, 갑자기 길이 잘든 양처럼 온순해진 승객들로부터 금품을 거둬들였다. 소득이 신통치 않자 사나이 중 하나가 소녀와 여전도사를 훑어보며 능글맞게 말했다.

“훗김에 코라두 풀자구!”

소녀와 여전도사가 양탈을 해보았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두 여자는

길가에 승용차를 세워 놓고 뒤따라온 다른 한 사나이와 차 안의 또 한 사나이에게 차 밖으로 끌려 나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나이는 소녀부터 ‘코 풀기’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소녀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사내들의 수컷을 행사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차 안의 세 의인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운전수만이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다가 더는 못 참겠는지 사내들을 향해

“그만 뒤! 니들도 사람이냐!”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차 안에 있는 사내들이 칼을 더욱 바짝 들이대며 위협을 주었다.

“이 새끼들! 바짝 못 얹드려!”

“허파에 바람구멍이 날 줄 알아!”

세 의인은 경쟁하듯이 바짝 몸을 움추렸다. 운전수는 사내들의 위협에 이랑곳하지 않고 끓어오르는 울분을 삭이지 못해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였다. 맞은 편 국도의 산모퉁이에서 사이렌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비쳤다. 국도 순찰차였다.

밖에서 ‘코 풀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나이가 다급하게 외쳤다.

“야 튀자! 새리들이다!”

차 안에 있던 사내들이 다시 한 번 위협을 주고 재빨리 그들이 타고 온 승용차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또 번개 불에 콩을 구어 먹는 것보다도 더 빨리 줄행랑을 놓았다.

순찰차가 사건을 파악하고 범인들을 추적한 뒤, 봉고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승객들은 이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설움에 겨운 소녀의 흐느낌

소리만이 간단없이 계속 되었다.

정치저사가 침묵을 깨고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다.

“언제나 국민을 안심시킬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날는지…….”

스님이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러자 여전도사가 옆에 앉은 목사에게 모기 소리만 하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전 당하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경찰들이…….”

“감사한 일ियो. 모두가 주님의 은총ियो…….”

여전도사가 “아멘!”하고 화답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화가 난 운전수가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다.

넓은 봉고차는 사지가 뒤틀리는 소리를 내며 어둠 속을 질주하였다.

어둠은 겹겹이 쌓여 언제까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강태근** 충남 논산 출생. 1975년 국방부 주최 광복30주년기념 현상소설 당선. 前 고려대학교 교수. 前 대전문학관장. 소설집 『잃은 사람들의 만찬』 외. 2018 대전문학관 성인대상 상·하반기 산문창작반 지도.

# 첫 사내

안현심

잉카의 바위갈피,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사내 하나 살고  
있지. 신부를 잃어버리고 혼자서 협곡을 오르내리는,

햇빛 부신 어느 날, 황금단추와 가죽부츠로 치장한 이방  
인이 고대의 강을 거슬러 올라왔지. 번쩍이는 장신구와 풍  
모에 반해 신부는 그들을 따라나섰지.

별들의 심장을 파헤치고, 소금사막을 평정하는 무리에 편  
승하여 달리고 또 달리다가 신부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지.

전생의 골짜기 첫 사내를 생각하네.  
나만을 불러 헤맬 순금의 가슴을 그리워하네.

사억삼천이백만 년이 흐르고  
또다시 원시가 도래한다면

만날 수 있을까  
그 바위갈피.

**안현심** 전북 진안 출생. 1990년 장르 시 등단. 2004년 불교문예 시 재등단. 2010년 유심 평론 등단. 시집 『연꽃무덤』 외. 2018 대전문화관 성인대상 상·하반기 시창작반 지도.

# 변비

양애경

장폐색(腸閉塞)으로 입원까지 한 동네 할머니 두 분 있다  
병명이 무거운데 사실 그거, 똥이 막혀 안 나온 거다  
얼굴이 참외꽃처럼 노랗게 시들어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신다

- 엄마, 저번 엄마 고관절 수술하고 닳새나 똥이 안 나와서  
내가 손가락으로 엄마 항문에서 딱딱해진 똥 꺼내준 거  
기억나우?
- 아니, 몰라. 어떻게 말이니?
- 나도 변비로 내 항문에서 꺼낸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  
걸 하게 될지는 몰랐지
- 손가락 넣어서 속이 다치면 어쩔려구?
- 간호사가 변비약하고 비닐장갑 두 개 주더라구.  
딱딱한 콩알 같은 거, 염소똥 같은 거, 조금 더 큰 덩어리  
3개 꺼낸 뒤에 시원하게 나왔지
- 1회용 비닐장갑 정말 고맙더라고.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

저녁 먹고 돌이 앉아 가벼운 수다를 떨고

속으로는,

- (내가 그런 일까지 한 딸인데

어디 아픈 데 있음 참지 말고 꼭 나한테 말해야 해),  
라 했다.

**양애경** 서울출생.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시힘·화요문학 동인. 前 한국영상  
대학교 교수. 시집 「맛을 보다」 외. 2018 대전문화관 성인대상 상·하반기 시창작반  
지도.

# 푸른 낙엽

박송이

열어야 할 문이 병실이라도

만져야 할 몸이 머리카락뿐이라도

아픈 엄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박송이** 인천 출생. 201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등단. 한남대학교 출강. 공저 『소울 플레이스』  
외. 2018 대전문화관 학생대상 겨울방학 시창작반 지도.

## 쇼와(昭和) 12년, 실화

이중세

이시이 신이치(石井眞一)가 동생 요시오(義男)에게

요시오, 오랜만이다. 네 가족 모두 잘 지내리라 믿는다. 게이조우(京城)는 몹시 무덥다. 청진기를 목에 두른 채 반도의 미치광이 사이를 돌아다니는 내 물골이 상상이나 될는지? 요새는 환자가 많아 몹시 바쁘다. 그 덕에 살이 좀 빠졌건만, 현대 밖으로 나온 배는 들어갈 생각이 없보다. 오늘도 무척 덥구나.

지난주엔 병동 근처 창고에서 불이 났다. 매캐한 연기가 사방으로 금세 퍼지더구나. 병원잡부에게 물으니 조선말로 실화라고 대답했다. 내가 못 알아들으니, 손가락으로 한자를 써서 알려주었다. 웬지 익숙한 발음이어서 물어보니, 잘못해서 불이 난 것(失火)과 실재 있었던 일(實話)을 가리키는 발음이 같았다. 대답하던 잡부가 들고 있던 잡지를 펴보였

다. 거기에 실린 소설 제목도 실화(失花)라고 발음되더구나. 재미있는 우연 아니냐.

잡담이 길었다. 어제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기묘한 자가 입원했다. 이 자의 독특한 병세에 대해 의논할 만한 사람이 여기엔 없구나. 편지 오가는 시간이 적잖겠지만, 네게 의견을 좀 묻고 싶다. 편의상 이 환자를 L이라 부르겠다.

닷새 전 L이 이곳에 입원했을 때 실수가 저질러졌다. 간호부가 차트를 건성으로 넘긴 탓에 L이 내과로 보내진 것이다. 자살소동을 벌인 정신질환자를 배앓이 환자 사이로 보냈으니 사고가 나는 건 당연지사, 큰 소동이 벌어졌다기에 간호부가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었다. 병실 입구엔 몰려든 내과환자들이 입을 벌린 채 L을 지켜보고 있었지. 참으로 소름끼치는 광경이었다. 환자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주변에 만들 어놓은 난간 위에 L은 쪼그려 앉아 있었다. 폭이 2cm도 안 되는 쇠 난간을 발가락으로 꼭 움켜쥔 L이 뭔가를 웅얼거리며 양팔을 퍼덕였는데, 그건 햇대에 얹은 새를 연상시켰다. 표정은 멍청했지만 눈가엔 광기가 번들거렸지. L은 우리를 굽어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음산하게 웅얼거렸는데, ‘뭐야(何だ)?, 뭐야(何だ)?’ 라는 것 같았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었을까, 혼자만의 지껄임이었을까?

달려온 정신병동 간호부들을 시켜 L을 끌어내렸다. 그를 병동에 수용시킨 뒤 나는 L을 살펴보았다.

L은 스물여섯 먹은 조선인 사내로,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인텔리라 한다. 몸이 깡마른 그는 사자 갈기처럼 뽀친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사람이다. 힘이 세어보이지는 않는데, 높은 곳에 발가락 힘만으로 올라가 앉은 광경을 보면 다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입원 기록을 보

면, 아주 오랜 기간 집에 틀어박혔던 은둔자 L은 한 달 전부터 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급작스레 집 밖을 쏘다녔다는구나. 식사도 거르고 용모도 전혀 돌보지 않은 채 말이다. 그날도 밖에 나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미쓰꼬시(三越) 백화점 옥상에서 자살하려다 붙잡혔다는 것이다. 이상, 위의 사안은 입원수속기록에 의거했다.

환자를 살펴보며 나는 동전을 떠올렸다. 너도 알다시피, 은둔자 형과 떠돌이 형은 공존할 수 없는 대립형 정신질환이다. 서로 배반되는 양상이 한 달 사이에 앞뒤로 딱 붙어 나타났으니, 내가 동전을 떠올린 것도 무리는 아닐 거다. 달이 없는 밤, 환자를 살펴던 나는 L을 보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며 고요히 누워있었어. 간호부는 햇대에 오르는 일을 빼면 L은 꽤 얌전한 환자라 하더라.

특이한 건 검은 동자가 매우 짙은 그의 눈이다. 다소곳이 누워있지만 눈동자만은 분주해. 병실 이곳저곳을 불안하게 살피는 그의 눈은 몹시 그로테스크해 보여. 이 불안은 병의 결과일까, 원인일까?

L의 발작시간도 언급해야겠다. 이 자는 꽤 규칙적으로 햇대-그가 자주 오르는 침대 난간, 창턱, 테이블 끝을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에 오른다. 오후 네 시쯤 되면 L의 손이 떨리며 눈동자의 불안이 빨라지는데, 저녁 사이렌이 울리는 다섯 시가 L이 햇대에 오르는 시각이다. 발광은 한낮에도 일어나는데,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두 울리기 직전에 발광은 시작된다. 그 타이밍이 매번 너무나 정확하다. 병실엔 시계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다. 그의 돌아버린 뇌 안에 발광을 알리는 알람이라도 박혀 있는 걸까. L은 침대에 있을 때는 침대 난간에 오르지만, 다른 때에는 아무데나 올라간다. 십오 분 가량 햇대에 올랐다가 비틀거리며 침대로 굴러 떨어지지. 햇대에 올라 있지 않을 때는 가만히 누워 병실을

살피곤 하는데, 신경증 환자 특유의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발작 이후 경직 현상은 천천히 완화된다.

누가 봐도 사이렌과 핫대 위의 L이 긴밀하게 엮인 게 분명해. 사이렌과 L은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보인다. 대체 뭐가 원인인지……. 우선은 L을 관찰하고 그의 주변인과 내담을 가지려 한다. 입원수속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수면제를 복용해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함께 알아볼 일이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내가 왜 그를 L이라 부르는지 눈치 챌겠구나. 긴 침대 끝에서 몸을 곧추 세운 그자를 보며 나는 알파벳 L을 떠올렸었다. 그자가 핫대에 오를 때 뿜어져 나오는 광기(Lunacy)의 강렬함을 설명할 길이 없구나. 사진사를 불러 그 광경을 찍어볼 생각이다. 핫대에 똑바로 섰다가 팔을 펴덕이며 찬찬히 내려앉으며 내뱉는 L의 음산한 말투, 뭐냐고 뭐냐고 되풀이하는 그의 뇌까림을 네가 들어보았더라면.

얼추 다 말한 것 같다. 가능성이 어떠냐? 너도 알다시피 이시이 가문의 이름이 남을 만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건 내 오랜 꿈이었다. 마침 좋은 실험대상이 나타났으니 함께 분발해보자.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도 이시이의 새를 내놓으면 어떨까. 멋지지 않느냐, 이시이의 새!

L이 지키는 시간의 엄밀성과 뇌과학적 요인을 정리하면 수확이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본토 환자 중에서 이런 케이스를 찾아봐라. 구속복에 안정제를 맞은 L은 지금 얄전히 누워 있다. 며칠은 저렇게 둘 생각이다. “맹수가 가축이 되려면 이 흉악한 독아(毒牙)를 전단(剪斷)해 버려야” 하니까. 작성 중인 관찰일지는 일정량이 되는대로 보내마. 답장해라.

- 쇼와 12년 7월 22일, 게이조우에서 형

## 화가 K가 소설가 P에게

“다이몬드(Diamond)” 앞을 지나다 자네가 나를 찾고 있다는 이야길 들었네. 이 편지를 사환아이 손에 들려 천변(川邊)에 있는 자네 집으로 보내려는데 길이 엇갈릴지도 모르겠군.

경성제대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더군. 가보지 말걸 그랬어. 팔다리를 몸에 꼭 붙이게끔 만드는 옷을 입혀놓았는데, 기운이 다 빠졌는지 축 늘어져 있더군. 몰라볼 지경으로 얼굴이 상했더군. 꼬챙이처럼 말랐는데, 치든 눈이 괴이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네. 날 알아보진 못 했어. 덩수룩한 머리엔 까치집이 젖고 공룡 뼈처럼 큼직한 목울대가 꿈틀댔는데, 메마른 피부에 켜를 이룬 때가 마치 며칠 묵은 눈(雪) 같더군. 그 친구는 파라오처럼 보였네. 봉대에 싸인 고대의 미라 말일세.

대체 한 달간 이 친구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단 말인가. 휘둥그레진 눈을 뒤룩거리기만 할뿐, 그 친구는 대답이 없었네.

나는 늙었네. 이런 일을 겪기엔 너무 늙었던 말일세.

육중한 철문으로 격리된 정신병동은 감옥을 연상시키더군. 그곳은 광기와 현실의 경계선이었고, 몽롱한 약기운이 가득했지. 쇠창살 사이로 침대에 앉은 환자들이 보였어. 정신병에 정신이 파 먹힌 그들은 몽롱한 눈빛으로 나를 마주 보았어. 복도는 포르말린 냄새로 가득했고, 피골이 상접한 그들은 시인 같았네. 왕을 따라 순장 당하는 시인(侍人) 말일세.

어째서 나를 못 알아보았을까.

며칠 면회를 제한한다니 병원에 가지 마시게. 병원비는 내가 지불했

네. 개의치 말게. 다행히 내겐 여유가 있고, “이것은 물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재앙”이니 말일세.

집에 돌아갈 걸세. 등이 참을 수 없이 아프다네.

- 7월 22일, 우고당(友古堂)에서

### 소설가 P가 화가 K에게

혹시나 해서 부친께 가보니 사동(使童)이 놓고 간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면회가 불가함은 안정을 위함이겠지요? 당장이라도 벗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대범하게 풀어주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옥상에서 난동을 부렸다면, 화신상회 옥상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저는 지금 다방 낙랑 파라(樂浪 parlour)에 있는데, 모두들 그 친구 얘기 중입니다.

편지내용으로 봐선 선생께서도 이 친구 행적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쉬겠다고 한 터라 저도 그리 믿고 있었습니다. 헌데 난데없이 자살소동이라니요.

두어 달 전 경성역 찻집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외락 끌어안고 보니 몹시 떨고 있더군요. 혈령한 코르덴 양복 차림으로 땀투름히 서 있었는데, 흰 셔츠는 땀으로 젖었고 두 뺨엔 경련이 일고 있었습니다. 피부 아래 암잔함이 감도는 게, 평소의 명석함은 간데없었습니다.

따끈한 보리차를 내오게 하고는 그 친구를 앉혔습니다. 왼쪽 입술이 계속 경련을 일으켰는데,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부를 물으니 한참 뒤에야 “상식에 대한 내 갈망과 지적 욕구가 일으킨 갈증이 가증할 병이 되어 내 속을 파먹었네. 지금은 껍질뿐이”지라고 대꾸했습니다. 요즘도 글을 쓰냐고 묻자, 입술만 달싹이더군요.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이!

정성역에서의 만남을 떠올리니 마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내리 넘 어가듯” 기억이 출렁입니다. 찻집에서 나온 우리는 누런 가스등불이 켜진 역내를 거닐었습니다. 높은 기둥이 자아낸 그림자는 짙었습니다. 소설과 그림에 대해 몇 마디 건네 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종이를 찾자 품고 있던 노트를 꺼내 손에 잡히는 대로 북 찢어주더군요. 주소 적힌 종이만 받고 그는 가버렸습니다. 집에 와 살펴보니 그중 몇 장엔 기괴하면서도 흥미로운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끈끈한 손자국이 난 종이에선 알아볼 수 없는 비문, 의미가 흐린 지절임,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헛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 7월 22일, 한밤에 P

이시이 요시오가 형 신이치에게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역에 계신 형님 가족을 걱정합니다. 아야코(綾子)가 볼거리를 앓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시이의 새라니 정말이지 유쾌한 작명입니다. 형님은 정말 못 말리

겠어요. 우리가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의 L은 어떻습니까? 편지를 읽으며 L의 증상을 상상했습니다. 미스터리한 그의 히스테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집니다. 부인하기 어렵군요. 그래요, 저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 견해가 궁금하시겠지요? 이런 증상은 저도 처음이어서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도쿄대에 있는 고토 다카오(後藤孝生) 선생은 만주에서 폭사(暴死)한 동료로 본 병사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정신적 상흔을 병인(病因)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럴듯한 의견입니다만, 게이조우에 사는 인텔리가 어떤 경위를 통해 그런 쇼크를 받았을까요?

L은 제게 아직 모호합니다. 또렷하질 않아요. 보내주신 7월 21일자 관찰일지에는 L이 겨드랑이를 유심히 살펴본다고 적혀 있던데요. 뇌엽 절제술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뜨겁지만, 감행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특정 약물에 대한 생체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실험을 병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형님처럼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이시이의 새라니요. 쇠 난간 위에 발가락만으로 올라가 새처럼 팔을 휘젓는 미치광이가 흥미롭긴 하지만, 아주 좋은 연구결과를 끌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자 관찰일지와 보호자와의 내담기(內談記)를 보내셨나요? 다른 편지와 함께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해협을 오가는 화물선이 증설되었다지만, 편지 오가는 속도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도쿄와 게이조우 간의 거리가 실감납니다.

- 쇼와 12년 8월 2일, 아우가

## 이시이 신이치가 동생 요시오에게

잘 지내겠지? 태풍 뒤에 찾아온 폭염을 견디며 편지를 쓴다. 무덤구나. 기진맥진이다. 이대로 살이 빠진다면 다음 달에는 혁대를 바꿔야 할 지도 모르겠다. 네 답장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믿는다.

차트에 기록된 L의 보호자를 만난 건 나흘 전이다. 연심(蓮心)이라는 여자인데, 자기 집에 술상을 차려놓고 내객(內客)을 받는 기생이었다. 예전엔 꽤나 예뻐서 얼굴인데, 어깨가 도톰해지고 화장독으로 얼굴이 시퍼레진 지금은 영락없는 퇴물이다. 쪽진 머리에 색이 바란 옥비녀를 꽂았더구나. 수상동 쪽방에 사는 그녀는 방을 가로지르는 장지문을 세워 아래쪽에서 손님을 받고, 위쪽은 L에게 내주었다고 한다. L과 연심도 예전엔 내객과 기생 관계였다는군. 건질만한 건 없었다. L이 햇대에 오르는 걸 본 여자는 까무러쳤다.

여자가 다녀간 다음 날, 두 사람이 문병을 왔다. 땅딸막한 곱사등이는 경성상공회의소 근방에서 골동품을 파는 화가라 했고, 감색 양복을 차려 입은 깔끔쟁이는 소설가라고 했다. 썩한 눈에 비죽비죽 솟은 머리, 각질 얇은 허연 얼굴을 한 비루한 L의 좌우에 두 사람이 서니 얼마나 우습던지. 오른쪽에 파나마모자를 눌러쓴 곱사등이 화가를, 왼쪽에 잠자리 안경을 쓴 모던보이를 둔 L은 시종을 거느린 리처드 3세처럼 보였다. 환자가 많아서 L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묻지 못했다. 쉽구나. 차 후에 내담을 한 번 더 가지려 한다.

L의 두 친구와 바통을 주고받기라도 하듯, 또 한 명의 흥미로운 인물이 나를 찾아왔다. 포마드를 잔뜩 바른 머리에 카이젤 수염을 지른 덩치

좋은 사내는 쓰카다 시게루(塚田茂)라는 내지인(内地人)인데, 퇴기의 부탁을 받고 왔다더구나.

알고 보니 그는 연구를 위해 조선에 체류 중인 정신의학자였다. 나는 몹시 고무되었다. L과 친하진 않았지만 가끔이나마 그를 봤을 테고, L의 발병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쓰카다 박사를 혼마찌(本町)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연심이라는 여자가 한 말의 의미는 쓰카다 박사의 설명을 통해 보충이 되었다. 그 여자의 말만 들어선 이해가 안 되던 상황이 박사의 도움으로 맞아 들어간 셈이다. 쓰카다 박사는 L의 질환을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했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가 정말 옳을까?

내담기를 정리해 보낸다. 네 견해가 몹시 궁금하다.

- 쇼와 12년 8월 3일, 게이조우에서 형

## 내담기

이시이 - 입원 전에도 쪽 환자를 지켜보셨습니까?

쓰카다 - 그렇진 않소. 나는 계화라는 기생의 단골이었다가 요새 연심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오. 고된 이국 생활을 달래기 위한 여흥이라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난 연심이의 괴팍한 서방을 두어 번 봤을 뿐이오. 파리한 안색의 인텔리더군. 관심을 두진 않았소.

이시이 - 환자가 쇠로 된 침대 난간에 오르는 걸 보셨나요?

쓰카다 - 그 집엔 침대가 없소. 그가 하는 짓을 병원에서 처음 보았소.

참으로 괴상하더군! 균형 잡기가 힘들 텐데.

이시이 - 보호자가 환자에게 매일 돈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쓰카다 - 방에만 틀어박힌 그자를 외출시켜보려고 연심이가 낸 피요.  
돈을 주면 은둔생활을 견어치울까 싶었다지? 헌데 그자는 머  
리맡에 모아두기만 했다더군. 한숨을 쉬며 금고를 사다줍디  
다.

이시이 - 그 금고를 던져버렸다면서요?

쓰카다 - 영문을 모르겠더군. 연심이 말로는 돈을 착실하게 모으다가  
별안간 금고를 내던졌다던데.

이시이 - 저는 금고를 버린 장소에 주목합니다.

쓰카다 - 변소 말ियो?

이시이 -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여자가 몸을 팔아 마련해준 겁니다.  
그걸 똥 속에 처박은 거지요.

쓰카다 - 혐오감 때문이라는 거요?

이시이 -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까?

쓰카다 - 확증하기 어렵소.

이시이 - 햇볕도 안 드는 방에 틀어박혀 번데기처럼 지내오던 L이, 아  
니 환자가 갑자기 외출을 했다면서요? 은둔자가 갑자기 떠돌  
이가 바뀌는 게 가능합니까?

쓰카다 - 대립양상을 함께 보이는 환자는 나도 처음이요.

이시이 - 외출의 계기가 뭘까요?

쓰카다 - 연심이는 모르더군. 한밤에 기어들어와 잠에 빠지고, 정오에  
야 부스스 일어나 연심이의 옷에 지폐를 넣어주곤 다시 나갔  
다고 하오. 며칠간 계속 그러니 연심이가 걱정이 되는지 나를

불러 그자를 함께 기다렸소. 자정이 지나서야 그자는 돌아왔소. 땀에 폭 젖은 채 말이오.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을 틈도 없이 꼬꾸라져 잠들더군.

이시이 - 외출 이전엔 돈에 대해 상당히 무심하지 않았습니까? 은화를 쥐도 머리말에 돌 뿐이었는데 말이죠.

쓰카다 - 무심하다…… 음. 이런 일이 있었소. 연심이와 내가 꼬꾸라진 그자를 막 들어 올리려던 참에 뇌까립디다. 돈을 쥐버려야 한다고 말이오.

이시이 - 무슨 뜻일까요?

쓰카다 -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소, 젊은이. 지금 생각해보니 외출 전엔 꼬박꼬박 돈을 모았고, 외출을 할 즈음엔 금고를 내던졌다가, 외출 이후엔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군. 흠…… 나는 그자가 자존감 회복을 위해 돈을 돌려주었다고 생각하오.

이시이 - 혐오감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그렇다면 왜 처음엔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은화를 반질반질하게 닦기만 했다던데요.

쓰카다 - 그게 바로 혐오감이 결벽증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요. 더럽지 않다면 왜 은화를 닦았겠소? 나를 비롯한 내객들과 연심이의 행위를, 그 축축한 소리를 환자는 얇은 장지문 건너에서 다 들었을 거요. 더러운 돈이라? 동의하오. 그렇다면 은화를 머리말에 쌓아둔 건 만지기도 싫다는 뜻이겠군.

이시이 - 은화를 장식품 정도로 여긴 게 아닐까요? 지폐 얘기를 하던데요, 연심이라는 여자가.

쓰카다 - 외출 이후, 그자는 꼭 연심이내 내객을 받을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소. 내객들은 술맛 떨어져 했지. 연심이는 그 사람을 달래려 들었고, 놀다가 새벽에나 돌아오라고 지폐를 쥐어 주었소.  
이시이 - 환자가 외출 이후에 돌려줬다는 돈은 보호자가 전날 준 돈이었군요?

쓰카다 - 돈을 벌 위인이 못 되지. 그런데 꽤 큰돈을 받고서도 말을 안 들었소. 손님과 뒤엉키던 연심이내가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결국 내가 아달린을 구해다줬소.

이시이 - 외출 전엔 우울증을, 외출 후엔 신경증을 앓은 것 같습니다.

쓰카다 - 신경증? 노이로제 말이요? 글썄. 내 생각엔 정신분열증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다는 말이요. 잠복해 있던 증상이 외출을 기점으로 발현된 거지.

이시이 - 환자는 건물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외출과 자살시도가 관련이 있을까요?

쓰카다 - 그 점에 대해선 박사에게 묻고 싶을 정도요. 내가 정신분열증을 주장하는 이유는 외출에 있소. 그자의 내면은 두 개의 정신으로 나뉘어져 있소. 하나는 고치 속 애벌레, 다른 하나는 방랑객이요. 자아는 이 두 정신 사이를 오갔지. 자아가 첫 정신에 머물렀을 땐, 환자는 집에 머물렀소. 그러다 어떤 요인이 자아를 강하게 충격한 거요. 자아는 튕겨져 나갔지. 방랑객 정신에 자아가 머물자, 그는 밖으로 쏘다니기 시작했지. 그에게 집은 좌절의 공간이요. 외출은 그에게 좌절로부터의 탈피를 뜻하지. 햇대에 오른 건 억눌린 욕망의 표출을 상징하지 않을까. 전도유명한 인텔리였던 그는 장지문을 통해 동거녀의 신음소

리를 들어야 하는 참혹한 지경으로 전락했소. 스트레스가 극심했겠지. 비참함이 정신분열을 조장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그 분열 상황을…… 혹시…….

이시이 - 말씀하시죠.

쓰카다 - 아니오. 말이 헛나왔소.

이시이 - 외출 중엔 어디를 돌아다녔을까요?

쓰카다 - 나도 모르겠소.

이시이 - 저는 아무래도 극도의 우울증으로 자극된 신경증으로 판단합니다만.

쓰카다 - 글썄. 현실감각의 차이로 환자를 분석해야 할 거요.

이시이 - 햇대와 사이렌 소리와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카다 - 그 대목도 흥미롭소. 환자의 내면엔 두려움이 가득 한 것 같소. 그 불안한 눈동자를 보면 그건 확실해 보이오.

이시이 - 사이렌 소리는 경고를 뜻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내면의 두려움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 위협을 경계하는 게 아닐까요. 근래에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쓰카다 - 내가 알기론 없소. 그자가 외출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지, 어떤 사람을 만났을 지가 궁금하군. 외출과 발작에 무슨 관련이 있을 거요.

이시이 - 환자가 장지문 건너 여자 방에 가끔 갔다던데, 어떻습니까? 방을 어지럽히고 갑니까?

쓰카다 - 하는 건 별로 없다고 합디다. 화장품 냄새를 맡고 저고리나 매만진다지? 연심이 방엔 햇빛이나마 들어오니까. 윗방은 창도 없대요. 연심이 방에서 휴지를 태우며 시간을 보냈더군. 옷

기지 않소?

이시이 - 꽤 많은 진전을 본 것 같은데도 여전히 제자리로군요. 동전 한 쪽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쓰카다 - 뒤집으시오, 박사. 진실은 배면(背面)에 있으니. 언젠가 그자가 연심이에게 오 전짜리 지폐를 쥐여주었지. 나도 그때 있었소. 으스스하더군. 안개 속에서 인간은 아무 것도 판단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소. 그자의 눈이 그랬지. 그 안에 안개가 가득했소.

이시이 - 아, 그런데 조선말을 좀 아십니까? 환자가 발작 중에, ‘뭉야, 뭉야?’ 라고 하던데. 이게 조선말입니까?

쓰카다 - ‘뭉야?’ 라고 했던 말ियो?

이시이 - 그렇습니다.

쓰카다 - 묘하군. 그건 조선말로 ‘난다(飛ぶ)’는 말ियो.

#### 쓰카다 시게루 박사가 일본정신의학학회에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비오.

지원금을 거절하는 협회의 답신이 극히 무례한 언사로 이뤄졌음을 짚고 넘어가야겠소. 한평생 인류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력을 다해 온 본인이 이런 푸대접을 받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오.

때로는 본인이 이런 모욕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자문하오. 정신의학발전에 투신하겠다는 청년기의 결심을 떠올리며 본인은 이 모욕을 견뎌나가고 있소. 학회는 본인이 보고한 이 환자의 특이한 양상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오. 그건 당신들의 의무요.

본인은 이 환자가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케이스이며, 연구할 가치가 지극히 높음을 수차례 서한으로 증명해왔소. 세계 어느 학회지에도 보고되지 않은 희귀한 정신분열적 행태를 보이는 이 환자는,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과정을 노트로 기록하기도 했소. 이 노트에 프로이트를 위시한 전 세계 정신의학자들이 침을 흘리며 달려들 거요. 다 음을 읽어보시오.

“열세 벌의 유서가 거의 완성해 가는 것이었다. (중략) 자수(自殊)한 어느 천재 (중략) 이런 정경(情景)마저 불쑥 내어놓는 날이면 어떤 복수(復讐) 행위는 완벽으로 흐지부지하리라. 적어도 완벽에 가깝기는 하리라.”

‘유서’라는 단어가 우연한 끼적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오? 저건 자신의 종말을 직감한 사람이 쓸 만한 표현이지. 열셋이라는 숫자의 파멸성이 놀라움을 더하지 않소? 나는 이 노트와 환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 정신의 미답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소. 이 위대한 과업에 학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오!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오. 그야말로 푼돈-학회가 리셉션으로 낭비하는 돈의 1할이면 충분하오-이면 이 환자를 통해 인간 내면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오.

부디 빨리 환자를 다른 미치광이들 사이에서 빼내 독립된 연구소로 옮겨야 하오. 현재 임상 경험이 전무한 정신의학자로 인해 환자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소.

지난 요청서에도 썼듯이, 학회는 이 환자의 특성에 주목해야 하오. 자신의 뇌가 질병에게 점령당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노트는 빼곡하오. 우리는 이 노트와 이 특이한 환자-새처럼 햇대에 앉는 미치광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진행양상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을 거요. 본인은 이 환자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구가 정신의학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을 확신하오.

안타깝게도 지속된 연구 활동으로 인해 본인의 웅색한 은행잔고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당신들은 이전에 내게 준 지원금이 계좌라는 기생에게 갔다고 의심하지만, 나는 공금을 유용하지 않았소. 나를 무고한 이는 천벌을 받게 될 거요.

지원금을 보내주시오. 그렇게 된다면 본인과 협회는 함께 놀라운 학문적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거요.

사비를 털어가며 공을 들인 이 프로젝트를 당신들이 망친다면, 이는 크게는 전 인류의 지력을 감퇴시키는 일이고 작게는 한 정신의학자의 노고를 짓밟는 일이 될 거요.

속히 회신하시오.

쇼와 12년 8월 17일,  
일본정신의학학회의 일원임을 자랑스레 여기는  
의학박사 쓰카다 시게루

의학박사 쓰카다 시게루가 이시이 신이치 군에게

그간 잘 지내셨소? 이시이 군은 뛰어난 의사더군. 지난 내담을 통해

좋은 인상을 받았소.

환자의 내면을 읽으려는 군의 성실한 태도는 매우 좋소. 알고 있겠지만, 환자 가족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은 도리어 어렵다오. 왜냐면 우리 모두는 가까울수록 실은 멀기 때문이오. 구부러진 정보들은 애매할뿐더러 파편이기 일쑤고, 때론 몹시 오염되었기까지 하지. 박사도 알리라 믿소.

환자의 내면을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 자료는 기록이 아닐까 싶소. 나는 일기장을 고대하며 그자-당신의 L 말이오, 선생-의 자그마한 거처를 뒤졌소. 아니나 다를까. 환자의 노트를 발견했지.

이게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소. 날짜가 없거든.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일수도 있고, 몇 년 전에 쓴 걸지도 모르지. 일본어와 조선어를 마구 뒤섞어 썼더군. 환자의 분열된 정신 상태를 시각적으로 설명해주는 증거물이었소. 박사도 보면 흥미로워할 거요. 뒤로 갈수록 글씨가 뒤틀리는데, 몹시 휘갈겨 쓴 걸로 보아 환자는 폭발할 것 같은 내면의 들썩임과 강렬한 분열로 고통 받은 것 같소.

두개골 아래 폭풍이 인 거지.

노트를 분석해보고 무척 놀랐소. 그는 질병에게 자신의 뇌와 정신이 파 먹히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소. 정신의 변질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셈이지.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소. 게다가 그는 명민하고도 냉철한 기록자였소. 발목을 향해 천천히 달려드는 밀물처럼 엄습하는 정신질환을, 이 자는 지켜봤고 기록했소.

이시이 군은 아직도 노이로제라고 믿소? 음. 아무려면 어떻소. 이 노트는 정신분열증에 대한 증거일수도 있지만, 신경증에 대한 증표로 요긴할 수도 있소. 차라리 따로 병명 하나를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떻소?

학계의 관심을 끌기엔 그런 아이템이 좋다오.

이쯤에서 솔직히 털어놓으리다. 내가 쓸 만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소. 명예란 실로 귀중한 것 아니겠소. 나 또한 그렇구려. 연심이의 남자는 좋은 논문 감이었소. 나는 환자를 손에 질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소. 조선 속담에 등잔 아래가 어둡다더니.

난 이 자를 깊이 연구해보고 싶소. 환자는 당신 손아귀에 있지만, 노트는 내게 있으니 거래는 공평하다 생각되는데. 공동으로 연구한다면 일본정신의학회회의 지원금을 절반씩 나눠 쓸 수 있을 거요. 만일 당신이 단독으로 연구하길 원한다면 노트와 내 명예욕을 기꺼이 포기하겠소. 약간의 금전적 보상이 뒤따른다면 말이오.

노트의 가치를 잘 가늠할 수 있게 문구 몇 개를 무작위로 뽑아 보내오. 노트의 위조를 의심하진 마시오. 그런 짓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소. 당신을 위해 우리말로 옮겨 적소. 봉투에 적힌 주소로 답신 하시오.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끗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분열자(精神奔逸者)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 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발만 드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오.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제행(諸行)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오. 굿바이.

니코틴이 내 뺨에 얹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의례히 백지(白紙)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공할 상식의 병이오. 굿바이. 모두 굿바이! (테이프가 끊어

지면 피가 나오, 생채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굿바이)”

– 쇼와 12년 8월 19일,  
당신을 친애하는 쓰카다 시게루

어리석은 형 이시이 신이치가 동생 요시오에게

아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나.

병동 간호부들을 죄다 파면시켜 버렸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어찌  
면 좋으냐.

묘하게도, 그날따라 병동 전체가 고요했다. 징조가 광기를 억눌렀는  
지, 어떤 미치광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 간호부들이 비어있는 L의  
침대를 발견한 시각은 오전 열한 시였다. 연락을 받고 나도 급히 뛰어다  
녔지만, 어디서도 L을 찾을 순 없었다. 병동을 막아놓은 철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참 후에 계단 위에서 고함소리가 들  
렸다. 허겁지겁 올라가보니 옥상으로 통하는 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몰  
려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L이 있었다.

옥상난간 부근에 선 L은 하늘을 바라보는 중이었는데, 아침에 주사된  
안정제 탓인지 행동이 굼뻤다. 난간에 가슴을 기대고 짐승처럼 목을 길  
게 뻗어 그가 천천히 몸을 낮추었다. 조선인 잡역부들이 말을 걸자, 쪼그  
려 앉은 L은 우리를 돌아보았다. 입술 사이로 침이 길게 흘렀다. L의 얼  
굴에서는 우는 것 같으면서도 웃는 것 같은 묘한 일그러짐이 천천히 퍼

저나갔다. 물에 빠진 잉크처럼, 그자의 얼굴에 절망과 폭소가 비명과 희락에 뒤섞이고 있었지. 그 끔찍함이란! 난간을 가슴으로 끌어안은 L은 곧 내려올 것처럼 보였어.

그때, 정오 사이렌이 두 울렸다.

마치 북방의 신이 불어대는 것처럼 명징하고 우렁찬 사이렌 소리가 길게 퍼졌고, 내 등골은 차갑게 젖었다. 눈동자를 굴려대던 L이 사지를 부르르 떨었다. 그는 난간 위로 올라갔다. 자살소동을 일으키며 붙잡혔던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에서처럼 철제 난간을 발가락으로 붙잡은 그는 잔뜩 몸을 오그라트렸다. 요시오, 그 때에야 나는 L의 질환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로등마다 설치된 사이렌에서 끊어지지 않는 긴 굉음이 고막을 파고 들면, 이곳 조선인들은 우리와 함께 도쿄의 황궁을 향해 허리를 굽힌다. 요시오, L은 사이렌소리에 반응해 햇대에 오른 게 아니라, 사이렌에 거역하기 위해 햇대에 오른 것이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눈은 불안하게 뒤룩거렸다. 햇대 위에 똑바로 섰던 그는 어디론가 뛰쳐나가기 위해 달리기 선수처럼 웅크렸다. 그는 사이렌소리로 폐쇄된 이 땅이 아닌, 맑게 열린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말이다. 그는 자살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 비상을 알리는 그 소리가 그의 비상을 독촉했고, 절망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던 그의 열망이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에서 발현되었을 뿐이야. 정신병동의 철문에 갇힌 뒤로는 침대난간을 햇대 삼을 밖에, 그는 도모할 다른 수단이 전무했던 것이다…….

다시 그날의 끔찍한 기억으로 돌아가자. 마침 바람은 모두의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있었다. 난 머리털이 바짝 일어서는 것을 느꼈어. L의 환

자복은 깃털처럼 가늘게 떨렸고, 긴장한 두 다리는 잔뜩 구부러져 있었다. L을 붙잡기 위해 나는 뛰었다! 간호부들도 달려들었지만…… 손 뺄을 겨를도 없이 그는 파란, 아찔하도록 깊은 하늘로 날아들었다. “날개”를 편 L은 자신의 가녀리고도 텅 빈 가슴으로 그 모든 공간을 가득 끌어안았던 것이다.

병원에서 문책이 있을 예정이다. 환자관리를 잘못했으니 도리가 없다. 한 가지 시원한 일은 쓰카다라는 사기꾼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 교활한 카이젤 수염은 L이 작성했다던 노트를 발미로 계속 치근땃었거든. 그 꼴도 이만 작별이다.

맹렬히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목표가 사라지니 허탈하기 짝이 없구나. 요새는 술로 소일한다. 이시이 형제의 이름으로 신종질환이 밝혀지리라 믿었는데…….

— 쇼와 12년 8월 24일, 어리석은 형이

### 소설가 P가 화가 K에게

믿어지지 않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제 무덤을 찾았습니다. 텅장도 안 입힌 무덤에 술을 부었지요.

원통하였습니다. 어찌 문명(文名)대신 그 가여운 몸뚱이를 날리셨소.

통곡하였습니다. 내지인이었으면 그대 역시 저 푸른 하늘을 질주했을 터.

곡읍하였습니다. “종생기(終生記)” 한 줄 없이 어찌 세상과 작별하셨습니다까.

언젠가 함께 술을 마시는데, 벗이 다리를 꼬고 먼 산을 바라보더군요. 표정을 보니 지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이 여간 축축한 게 아니라”며 말을 건넸더니, “시시각각으로 자살할 것을 생각한다”더군요. 무엇이 그리 폭폭 끊어 넘치고 졸아 붙어 마침내 그슬리게까지 되었던 걸까요. 어쩌면 “요만 재주밖에는 없느냐는 것이 다시없이 분하고 억울한 사정이었고 또 초조의 근원이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벗이 손을 뻗어 사방을 짚으며 유리 상자가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젠 저도 유리 상자가 똑똑히 보입니다. 우리 각각을 둘러싼 유리 상자, 끈끈한 손자국이 가득 남았던 유리 상자……. 그 친구는 몸을 던져 그걸 산산이 부숴버린 겁니다.

서른 해도 못 채운 삶. 난해하고 기이했던 문장들. 가슴에 만 권의 책을 담았건만, 세상은 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대가리를 떡 꺼내어 놓고 쥐 꼬랑지도 못 달”았다고 성을 냈더랬지요. 그는 좁은 울에 갇힌 용봉이었고, 측량할 수 없는 내면을 지닌 기인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부었던 술은 거세당한 식민지 예술가 모두를 조상하기 위한 한 잔의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씨를 부정당한 망국의 후예인 우리를…….

그와 함께 걷던 경성 거리가 생각납니다. 장난꾼 같은 눈길로 거리를 둘러보며 그는 휘파람을 불어대었습니다. 웨이트리스에 대한 시시한 농담 이상의 무엇이 그와 나 사이에 자리했거늘……. 우리의 허정이던 발걸음이 그렸던 만곡(彎曲)에서 아지랑이가 뿜어진 낙조의 시간에, 그 친구는 꿈 너머에 그대로 남았고 새 꿈을 꾸려는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밤, 긴 아련함 사이로 사라지는 그가 도리어 또렷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슬픔도 찾아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여전한 하루를 살아가겠지

요. 가여운 사람! 그러나 아직 삶이라는 껍질 속에 갇힌 우리보다, 병과 가난과 고통의 껍질을 깨고 비상한 그가 왜 더 안타까이 여겨지는 걸까요. 아, 벼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 쇼와 12년 9월 2일, P

### 연심이 계화에게

계화 언니, 평안하시겠지요? 쓰카다 박사님께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지요? 보내주신 우편환은 잘 받았어요. 성의를 마다할 수 없어 장례비에 보탬어요. 어제 장지에 다녀왔어요. 늦여름 나뭇잎은 푸르렀지만, 그 끝에는 이미 옅은 가을빛이 스미어 있었어요.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고, 땅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럴 것만 같았는데. 한 사내의 죽음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나 그이는 제가 괴던 사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그림과 시를 탐닉하던 예술가이자, 총독부 건축과 기사 자리를 단숨에 꿰찬 수재가 아닙니까. 언니는 재주 많은 이가 명 짧다 하셨지만……. 그렇지만…….

외출에서 돌아온 그이가 문을 벌럭 연 일이 있었어요. 내객을 받던 중이었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부끄러워 그랬는지 화가 나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그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지요. 그이의 가슴뼈가 투박한 소리를 내며 울리더군요. 횡포를 부리는 저를 내객이 번쩍 들어 방 안으로 끌고 갔어요. 제 눈물 속에 비친 그이는 축축하고 허허로워 보였지요.

쓰카다 박사님께 얻은 아달린을 먹여보기도 했어요. 혹여 그이 때문에 내객이 끊기더라도 하면 어찌나요. 그네들의 짙랑이는 은화가 우리 두 입을 먹여 살리는 걸요.

언젠가, 제가 머물던 아랫방에서 그이와 함께 잔 적이 있었어요. 그이의 길고 가는 숨이 그 밤 내내 제 가슴을 간질였지요. 햇살이 떠올라 들창으로 별이 들자 그이는 베개 위에 엎드려 은화를 정성껏 닦았어요. 우둘투둘한 은전의 음각들을 매만지며 그이의 상념은 어디까지 달아나버렸던 걸까요.

방금 쓰카다 박사님이 들렀다 가셨어요. 그이의 노트를 가져오셨더군요. 박사는 그이를 통해 뭔가를 연구해보려 했다던데, 그이 없이는 노트도 쓸데없다고 하셨어요. 노트엔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태반이었답니다.

무수히 널린 백지는 죄다 파지요. 가슴 속에 먹은 있으되 몽당만한 붓조차 내겐 없소. 들보를 내달리는 쥐 털이나마 모아볼까. “닥쳐와야 할 일이 척 닥쳐왔을 때 나는 내 갈팡질팡하는 육신을 수습해야” 하오. 나는 태양빛을 그러모아 내게 주어진 은총의 부스러기들을 태워버리오. 닿을 수 없는 창문은 손바닥만 한 빛을 길어내 나를 그 밑에 웅송그리게 하오. 판은 그 정도가 마지못해 주어진 은총이외다. 행동의 부재 속에 굳어버린 육체는 박제로 전락하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 나는 유쾌하오.”

환상을 자아내는 매혹의 향취여! 그대가 뿜어낸 향기로움으로 사내는 황홀경을 접하는구려. 끝을 모르는 나의 화장품 애호! 그건 연민이자 증

오이며 나를 향해 되쓴 화살이오. “나는 조심도 할 줄 모르는 야인이니까 반쯤 죽어야 껌적대지 않”을 테요. 동정(童貞)과 형해(形骸)의 틈 어딘가로 아내가 흘러가요.

판은 모든 인생은 마주선 거울처럼 패러독스의 연속이오. 반추하오. 반추하오. 거울에 바투 앉아 나는 나를 반추하오. 나는 여기 앉아 저기 앉은 내게 경례를 보내오. “아랫배가 몹시 아”와 “나는 아편이 좀 생각”났소. 아내는 오늘도 머리말에 은전을 놓고 가오. 이불에 누운 나는 주머니에 한 자루 서슬 퍼런 칼을 쥐어준 누군가를 생각하며 고치 안에 갇힌 나를 조소하외다.

그이의 머릿속엔 뭐가 있었던 걸까요. 박사님 말씀처럼 질병이 그이를 파먹은 것일까요. “일시일각(一時一刻)을 허송하지 않고, 없는 지혜를 끊치지 않고 쥐어짜”던 성마른 성미가 그이를 더 아프게 했나 봐요.

자살이라지만, 저는 그이가 앓다 죽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요. 정신이 상해버린 그이는 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이는 왜 자신의 병을 회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병이 매섭게 달려들을 알면서도 왜 우두커니 서있기만 했던 걸까요. 그이가 골방 속에 자신을 가둔 세월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 옳았을까요. 그이가 땀에 젖은 오 원짜리 지폐를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었을 때, 저는 왜 수치를 느꼈던 걸까요.

“꿈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노트를 끌어안고 오늘도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이는 낙서들을 통해 지금도 제게 속삭입니다. 잠도 아닌, 꿈도 아닌, 그렇다고 생시도 아닌 명함 속에서 저는 나지막한 그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요. 나는 자는 것이 아니에요. 누운 것도

아니예요. 앉아서 나는 듣고 있어요.”

— 쇼와 12년 9월 4일, 수상동에서 연심

\* 직접인용은 이상이 쓴 「날개」, 「失花」, 「童骸」, 「逢別記」,  
「終生記」에서 가져왔다.

**이중세** 서울 출생. 2013년 토지문학제 평사리문학 대상. 2013년 목포문학상 희곡 부문 본상.  
2018 대전 유성문학마을도서관 상주작가. 소설 『삼키는 칼』 외. 2018 대전문화관 학생대상 여름방학 산문창작반 지도.



창작수업  
성인대상

# 시

---

강수원 고경미  
김만기 김순희  
김용현 김응순  
김재형 김종익  
박은우 박인숙  
박정열 박종숙  
박철하 백옥자  
안명숙 안시찬  
양순례 엄정인  
윤옥희 이미순  
이영숙 임형선  
장미순 전이식  
주경숙 주종헌  
천상인 천영애  
최재문 최진숙  
하재순 홍종승

## 상사화

강수원

ঝাঝিৰ্ণ য়নশিৰ্ণ ঝাঝিৰ্ণে গিৰ্ণে ঝাঝা  
ঝাঝা নৈৰ্ণেৰ্ণে গিৰ্ণে ঝাঝা

ঝাঝিৰ্ণ গিৰ্ণে ঝাঝা  
ঝাঝা ঝাঝিৰ্ণে গিৰ্ণে ঝাঝা

নৈৰ্ণেৰ্ণে ঝাঝিৰ্ণে  
ঝাঝা ঝাঝিৰ্ণে গিৰ্ণে

ঝাঝিৰ্ণে ঝাঝা ঝাঝা  
ঝাঝা ঝাঝিৰ্ণে গিৰ্ণে ঝাঝা

স্ৰ্ণে ঝাঝা ঝাঝা  
ঝাঝা ঝাঝিৰ্ণে গিৰ্ণে

ঝাঝা ঝাঝিৰ্ণে  
ঝাঝা ঝাঝিৰ্ণে গিৰ্ণে

## 풍경화

강수원

항구에 바람 불면  
배가 하늘에서 흔들린다.

어부는 주모와 질펀한 삶을 나눠 마시고, 깃발은 가슴만  
펼락이며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갈매기는 고양이  
눈으로 파수꾼이 되어 있고, 머리 허연 할머니는 하늘을 쳐  
다보고 밑으로 향한다.

바람 부는 날은  
배가 하늘항구에 떠 있다.

## 동백꽃

고경미

불게 타오르다가 무심히 떨어지는 저 송이들은  
어떤 사연으로 무리지어 땅에서 다시 필까

너먼저 나먼저 양보하기도 전에 몸붙이고 살던  
따뜻한 고향떠나 낯선 타향에서 울고 있다

어릴적 품어주던 사랑도 잊었는가  
젖땀 자식들 모질게 떨쳐내고 있는 모정에 반항하듯  
손에 손잡고 동토위에 가지런히 누워 있다

다시한번 옛날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보고자  
버둥거리는 내밀한 속삭임마저  
속절없는 아우성으로 전락해 버릴 것 같아  
초조하다

저멀리서 들려오는 서풍의 차가운 소리조차  
애타게 부르짖는 안타까움에 목울음으로 삼킨다

이제는 동토위에 스스로 발붙이고 일어서야지  
서로의 체온을 부벼가며 애써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 격려해가며 어깨를 감싸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많은 송이들이 무리지어  
눈물처럼 붉게 동토의 몸위에서 다시 피고 있다.

# 사모

고경미

불게 지는 노을 한 모퉁이에  
있다고 생각한 것 또한 허상이다

한 발자욱 다가서면 두 발자욱 멀어지는  
마음밖에 남아있는 잔영들 조차

슬픈 그림자 남겨두고 서둘러  
가려했던 서운했던 뒷모습이

이제사 그 의미가 덩어리지어  
피빛으로 물들고 말았구나

# 가을이 오네

김만기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붙어올 때  
가을이라 부르려네

고추잠자리 빨간 꼬랑지  
파란 물에 점을 찍고

사랑하는 가슴 불태우며  
그늘진 사람들도 위로받네

참새무리 논밭에서 숨바꼭질하고  
코스모스 덩달아 노래할 때

허수아비 춤을 추니  
가을이라 부르려네

# 무궁화

김만기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진한 향기로 유혹할 줄도 모르는  
핏빛서린 꽃잎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무궁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골마을 동구 밖 샛길에도  
해마다 거르지 않고  
피어나는 꽃

언제였던가요  
바람 불어 꽃잎 지던 날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피어날 때의 아름다움보다  
질 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은  
장미가 질 땐 안타까워하지만  
당신의 피고 짐은 관심 밖이었죠

어둠 속 별떨기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은 또 어떻구요  
내일 아침 미명의 끝자락을 잡고  
변함없이 피어날 당신을 사랑합니다.

# 날파리증

김순희

내 눈에는 날파리 한 마리 살고 있다  
어찌나 날썸지 잡히지도 않는다  
순식간에 지나쳐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있다

의사는 그 놈과 살아야 한다고 했다  
환한 대낮이 흠빛이다

활개치고 날아다니는 놈이 무서워  
두 번째 병원에 간 날  
박제된 듯 무표정한 의사는  
여전히 같이 살라고 했다

강제동거는 그럭저럭 익숙해지고  
이제는 날파리 대가족을 모시고 산다  
가슴을 넓혀 불청객들을 들이고 산다

## 옥동 댁

김용현

댕기 풀어 옥비녀 꽃고 족두리를 엮는다  
열여덟 윤씨네 홀어머니의 맏딸  
나주평야 부농의 맏아들 총각선생과 혼인하는 날  
3년 동란도 막바지, 포로석방하고 휴전될 즈음  
총멘 순경들 들이닥쳐 신랑을 뒷산으로 끌고 간다  
인민군과 내통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나...  
잠시 뒤 총성 메아리치고 하늘 무너져내린다

장례후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권유에도 귀를 막고  
중시하 시동생 넷 머슴까지  
종갓집 살림 청상의 슬픔 길을 잃는다

예물로 가져온 발재봉틀 옷을 짓고  
숨씨 빼어나 샅바느질도 하는 사이  
큰 서방님네 아들과 딸쌍둥이 양자삼아  
키워 가르치고 여위살이하기까지

세상은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일하던 기계가 고장나서 병원신세  
재봉틀 밟아대던 오른쪽 무릎수술했으나  
관절이 꺾이지 않아 뽕정다리 끌고다니며 웃는다  
밤마다 허전한 가슴 조각보처럼 기워가며 산다

환갑날 열녀 윤 정, 이름 두 자 돌비에 새겨진다  
시조부모 시부모 모두 90세 넘도록 모시니  
열녀효부 났다 본을 삼는다

어려서 큰댁 가면  
“도련님, 도련님!” 소리 얼마나 듣기 좋던가  
“작은 서방님!” 소리 요즘 들으면 어찌나 민망한지

88세, 뒷마루에 걸터앉아 지는 해 바라보다가  
“석양이 참 곱네요, 작은 서방님...”  
눈 가에 갇힌 세월이 말문을 튼다

# 쓰는 시 말고 사는 시

김용현

아름드리 소나무 숲 속  
빨간 지붕 오두막 부처님과 사는데  
숲에 사는 가족들 모두 살리는 옹달샘물  
하하하 흘러가고요

연못에는 분수가 솟아올라  
여의주 문 돌거북 승천 기다리는데  
밥 주면 작은 입 크게 벌리고  
금세 모여드는 물고기 세상  
새벽마다 해오라기 식사하러 오지요

원통돌탑 위 석불좌상  
그 아래 엮드린 물레방아  
연꽃 피고지는 사연 설하고  
못 가 청매실 꽃피면  
별들 꿀따는 소리 귀에 간지러워요

야생화 향기 코를 찌르고

강아지 사료 흠치는 산새 더불어  
모기떼, 반딧불이, 사슴벌레며  
두꺼비, 도롱뇽, 도마뱀, 다람쥐랑  
고슴도치, 고라니, 멧돼지들 다녀가고요

들리느니 물소리 새소리  
보이느니 하늘과 푸른 산  
어느 날엔 종일 사람구경 못하고  
구름발 일구어 그리움이나 캐며 놀다가  
계룡산 동동주 가슴적시고  
산나물 산열매 두루두루 먹고 살지요

## 동창생

김응순

만나면  
환한 얼굴  
기억 속으로  
뵈미는데

어디선가  
움트는  
푸른 추억  
솟아나서

그립다  
하기도 전에  
잔주름이 먼저 웃네.

# 질구지

김재형

1. 높고 뽕족한 가재봉이 보이는 반대편 산중턱에 김종필 정자가 있다. 그 밑 커다란 서대 저수지를 돌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방아목골이 나온다. 그 고개를 넘어서면 어머니가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고지대 포란형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2. 그 마을 입구엔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호두나무. 감나무가 흐느리지게 서 있는데 50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있고 그중 작은 외가댁, 이모할머니댁 등이 모여 있는 집성촌인데 그 앞 첫째 집이 외가댁이다.

3. 어릴때 가면 송이버섯토란국을 맛나게 해주던 외할머니 솜씨가 소고기국처럼 느껴졌다. 3대째 서당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말 남양군도에 다녀온후 진편한 토양에 부지런히 일구어서 촌부자가 된 외할아버지도 떠오른다. 돌아가며 안아주고 업어주던 외삼촌 2명 이모3명, 작은외가댁도 외삼촌 2명 이모 6명이나 되었다. 소나무가 늘어진 동구밖 내나이또래 막내 이모 막내 외삼촌과 다슬기, 피라미, 가재 잡던 토랑과 뛰어놀던 선영이 있었다.

4. 떠돌이 약장수 전도사와 인연으로 신앙을 가진 외할머

나는 예배당을 짓고 종탑을 설치하고 찬송하며 목회를 하는  
여목사님이 되셨다. 그래서 외삼촌은 목사님이 되셨고 청주  
이모 대구이모 울산이모는 전도사가 되었다. 우리 어머니는  
일찍 결혼해서 예외지만 시집살이가 고단할 때 잠시들러 쉬  
면서 위로를 받고 가던 곳이다.

5. 이제는 월외리로 신작로가 나서 현리 면사무소에서 가  
재봉 반대로 돌아 올라가면 되어서 방아목길은 옛 추억의  
길이 되었다.

6. 가을이 깊어가는 문턱에 옥천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벌써 질신리(疾新里)풍경, 그리운 얼굴들, 아련한 추억이 떠  
오른다.

# 사마귀 사랑

김종익

삼월네에게 장가든다고 입이 떡 벌어진 마당쇠, 첫날밤을 치른 후 포악해진 삼월네에게 잡아먹혔다. 친구의 죽음에 놀란 돌쇠, 곰살맞게 다가오는 사월네에게 장가들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어느 봄날 저녁에 장가가고 말았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사월네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사랑했는데, 태어날 딸년 생각에 다급해진 사월네는 두 발로 돌쇠의 급소를 공격하고 잡아먹었다.

두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된 삼돌이, 신랑각시 놀이하던 유월네를 포기하고 외롭게 살자고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배부른 친구들을 시샘한 유월네가 주먹만 한 눈물을 달고 다소곳이 삼돌이를 찾아왔다. 자신의 손으로 두 발을 묶고 삼돌이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삼돌이 감격해 포옹했는데, 사내를 안 유월네가 태어날 아들놈 배고프다는 투정을 상상하고 삼돌이 혀를 깨물었다.

미안해요, 유월이도 사마귀족 여자예요.  
수사마귀와 아웅다웅 살아가려면

유전자를 조작할 수밖에요.

# 어떤 삶

김종익

할 일을 마친  
마른 솔잎 떨어진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웃음 띤 얼굴로  
천천히 발효된다

술향이  
은은히 풍겨나간다

# 개와 늑대의 시간

박은우

길 저편에 서산 마애불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어느 행인이 내민 메모를 보며 손가락을 뺏어  
세세히 길을 짚어주고 있는 사내  
이우는 해를 받아 저녁 공기에 돌을새김 된  
순한 눈매의 저 사내를  
가만! 내가 어디서 본 듯도 싶은데

신호등을 건너 사내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다 움찔  
걸음을 멈췄다  
빛을 받는 각도마다 표정이 변한다는 서산 마애불처럼  
따뜻했던 사내의 얼굴은 그새  
북벽처럼 서늘하게 변해있었다

내가 방금 본 미소는 저 남정의 어느 곳에 숨어 있다가  
반짝 드러난 햇살이었을까  
짧은 찰나 자비롭게 나투신 마애불은 간데없고  
사천왕 같은 얼굴로 약속에 늦은 걸 타박하는

남편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한때 님이었다가 남처럼 텅텅해진 그, 사내

살다 보니 님도 남도 아닌 담이 되어버렸다  
어느 곳 암벽에는 미소가 파스한 부처님이 사시는데  
내 집 담벼락은 사철 한랭이다

늦었다 종종걸음치는 남편의 코트 깃이 장삼처럼 펄럭였다  
낮도 밤도 아닌 시각, 부처도 남편도 아닌 담의 뒤를 따  
르며

대체 어디쯤에 마애불이 계셨던 걸까  
바람벽 같은 뒤태를 유심히 훑어봤던 것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 모녀 三代

박은우

처녀적 어머니의 사진을 보던 딸이 말한다

– 엄마가 여기도 있어요

어머니가 빙긋 웃으며 답한다

– 네 모습이 닮 엄마 어릴 때와 똑 닮았다

곰곰이 생각하던 딸아이가 말한다

– 할머니가 엄마고 나도 엄마인거네

아!

세상이 일순간 아득해졌다

자두꽃 저문 자리 자두 열매 열리고

깨꽃 떨어지자 깨 주머니 매달리는 이치일까

누옥처럼 남루하던 몸 한 채가 귀하게 느껴졌다

내가 어머니를 증거하고 딸이 나를 증거한다

여자의 존재란 기실 헤아릴 수 없는 어머니들의

전생이고 현생이고 어찌면 내생이다

언제 시작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긴긴

어머니들의 연대기가 모르는 사이 내 몸을 흘러

딸아이에게 대물림됐던 거다

이 결연한 인과가

무감하게 살아온 몸 구석구석 피돌기를

뜨겁게 일으켜 세웠다

40℃

박인숙

세포 하나하나마다 파고드는 한기寒氣  
달랑 속옷 하나 걸친 맨몸을  
훑고 지나가는 알코올 숨  
차라리 불화살 되어 온 몸을 찌르는데

날개 부러진 참새, 불소낙비에 젖어  
꺼질 듯이 가냘픈  
숨  
몰아쉬는  
53병동 905호실

바닥의 심연속으로 한없이 빨려들다가  
깃털처럼 훌훌 날아 허공을 뽕뽕 떠다니다가

내려다본 지상地上은  
아득하다

미친듯한 8월의 태양빛은

8차선 도로의 아스팔트를 녹일 듯 쏘아대고  
찢득-한 길 위를 내달리는  
차, 차, 차 들  
와 와- 건널목을 건너는  
출렁이는  
사람들의 물결

어디를 향하여 저리들 달리는 걸까  
무엇을 잡으려 저렇게 종종걸음을 치는 걸까  
살아있다는 건 결국  
움직인다는 걸까

나 언제 저 물결 속에서  
함께 출렁인적 있었던가  
나 언제 다시 저 물결 속으로 들어가  
함께 출렁일 수 있을까

# 호두알

박정열

손때 묻은 호두알 두 개  
골 패인 깊은 주름  
손안에  
물총새 소리  
‘뽀다다득 꼬다닥 뽀그그닥’

넓적한 돌에 호두를 갈던  
7월 물가  
새끼 중태기\* 네댓 마리 손사래치고  
단발머리 출랑출랑  
나를 부르던  
여나 무살 또래들

‘꼬다다닥 뽀그닥 뽀다드득’  
젓 몽우리서든 가시내도  
그 도랑도  
없다  
아무도 없다

손때 묻은 호두알 두 개  
손아귀에서  
‘뽀다드득 꼬다다닥 뽀그닥’  
물총새소리 기억 저편

그리움만  
아른  
덜  
뽀

\* 중태기 : 중고기(잉엇과의 민물고기)의 충청도 방언

# 왜냐하면

박정열

이제, 우울모드는 싫다

그 빛이 아무리 광대廣大하다해도

크고 환하게 빛낼 수 없고

비추고

또 비춘다 해도 바뀔 수도 없다

바라는 대로 되기만 한다면

동정同情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면 좋겠고

동경憧憬도 아닌,

이 사실에 폭 빠져들면 좋겠다

담벼락에 기대선 해바라기로

달이 떠오르는 들녘, 달맞이꽃으로도

별빛을 품고

바람이 흔드는

풀잎에 얹힌 이슬이라도 좋다

오르다 삼백예순다섯 날을  
오르고 오르다가 마지막 한계단아래 엎어  
져도 일어서고  
뒹굴다 또 다시 일어서고 마는  
  
잡초이리라. 꽃핀 들풀이 되리라  
  
우울모드는 싫다. 이제는

# 건강 염려증

박종숙

건강검진 결과  
큰병원에 가보란다

죽을병인가  
자고 또 자도 피곤하다

삼남매는 아직 어린데  
남편은 또 어떡하고

엄마 없는 아이 만들지 말아야지  
내 남자 홀아비 만들지 말아야지

정밀검사 받기 전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떨었다  
수술동의서 쓰는 남편도 떨었다

살면서 조금 아프기만 하면  
혹시나 하며 또 떨었다

친정엄마처럼 일찍 가는 것은 아닌지  
엄마가 산 나이까지 불안에 떨었다

소금도 황금도 아닌 지금  
엄마 나이보다 네 살 많다

# 왕비가 된 누나

박철하

난 왕자  
큰 누나는 살림밋천  
작은누나는 슬픈 사슴

엄마의 편애에도  
대나무 되어  
꽃꽂이 자란 그녀

나는 보았다  
설거지 하며 흐르는 사슴의 눈을

처녀 때  
동네사람들  
눈이 커서  
‘영화배우 문희를 닮았다’ 하였다.

엄마의 영면 앞에 앉아  
땃아내는 누나의 눈물

어디서 왔을까

그녀는

슬픔을 승화시켜

대전중앙시장 왕비가 되어

동양이란 궁궐 짓고

수많은 귀빈을 반겨 맞는다

# 내 안의 고적

백옥자

햇살의 싱그러움들  
온화한 대지의 숨결  
하늘은 슬프도록  
푸르게 푸르게

나와는 상관없는 바람이  
내 가슴을 때린다

이렇게도 다정한 은행동 거리에서  
아니면 둔산동 거리에서  
우리들이 확보했던 아름다운 시간

미소와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젊은 영혼들은 그 어디에서  
집시같이 거리를 떠도는지

덧없는 인생 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온다

하지만  
문학이 내게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더  
공허했을까

# 이태석 신부님께

백옥자

먼 이국 땅 톤즈 나라  
열악한 환경에서 확고한 정신으로  
열정을 불태우신 신부님

톤즈 주민들 저마다에게 정을 남기시고  
앓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정작 신부님께서서는 대장암으로  
운명을 달리하시다

48세의 젊음을 뒤로 하고  
바람처럼 안개 속으로 떠나가신  
신부님  
진정한 숭고함입니다

이제는 신부님 후배들도 뒤를 이어  
학업과 의료  
그 모든 수고를 하신다고 하니

톤즈 나라를 내려다보는 별님으로  
편히 계시기를

많은 후원자들과  
톤즈 주민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비는 날입니다

# 나의 살던 집

안명숙

아버지 산소에 들렀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다

서너 군데를 거쳐 들어선 식당에는  
창밖으로 꽃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가을을 엮어가고 있다

겉은 적당히 꼬들꼬들하고  
안은 붉은 즙으로 가득한  
반 건조된 꽃감을 먹으며  
예전에 살던 집이 생각났다

대문을 들어서면  
감나무와 모과나무가 이층까지 뻗어있고  
앵두나무 대추나무와 꽃들...

그리 넓지 않은 마당에 모든 것을

갖춰 놓은 아버지가 계시고

매년마다 감을 깎아

이층 햇볕 잘 드는 벽에

발처럼 매달아 놓으시던

어머니가 계신다

꽃감은

한 번도 완전한 꽃감으로 살아남은 적이 없다

말랑말랑한 맛에 중독된 우리는

식당에 앉아 그 옛날 꽃감을 먹으며

추억을 되씹고 있다

산소에 누워 계신 아버지

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

큰오빠 결혼해서 데려 온 신부

둘째오빠 결혼한다고 데려 온 여자친구

나와 남동생

행복했던 옛날은 꽃감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살던 집에서 꽃감을 먹고 있다

## 상처받은 용\*

안명숙

고향 떠난 지 49년 만에

통영으로 돌아왔다

죽어서 23년 만이다

너럭바위 아래 한줌 유해로

누워있는 맘이 편치 못하다

나를 맞이한 건 환영과 축하만은 아니다

바깥에서 어지러이 고성이가 들린다

나는 수 십 차례 북한을 오가며

김일성을 우리 역사상 최대의 영도자로 칭송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동백림사건\*\*

무기징역으로 2년간 복역하다

독일이 나를 석방시켰다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

함부르크 자유예술원 공로상

괴테 메달 수상

칼 문화상

20세기 100년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에 선정된

나

음악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광주여 영원하라

화염에 휩싸인 천사와 에필로그

심청

.....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조국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놓지 않았다

나의 인생관  
치염상정處染常淨  
진흙탕 속에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운 흙탕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살고 싶었다

나를 낳아준 조국과  
화해하지 못하고  
여기 누워있게 된 것이  
마음 아프고 슬프다

나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진정으로 고향에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다

\* 독일의 소설가 루이제린저와 윤이상의 대담집

\*\* 동베를린 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 전문병원

안시찬

대전 동구 송촌남로 11번 길 116에 가면  
생각을 수술하는 본인부담금 0퍼센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예약제 병원이지만 예약 없이 오는  
중독성 환자도 있습니다

의사는 모두 소문난 명의  
사무원은 많은데 간호사는 없습니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아주머니가  
온종일 이곳저곳 광을 냅니다  
마음이 부서 박수를 보냅니다

의사가 호명하면  
환자는 문장을 펼칩니다

어떤 환자는 머리 팔다리 다 잘리고

몸통만 남아 심장만 발딱거리다가  
남의 것을 이식받고 새롭게 태어나지만

발가락 하나 소독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약일이 너무 멀어 안달이 돋는 병원  
잘된 수술만 진열하는 전시장도 있습니다.

## 그날

양순례

쿵 ~

함정에 떨어졌다

그리고

올가미에 묶였다

칭칭 감겨 움짱달짝 못하였다

고요한 사위는 어둠이 지배하고

유령의 소리는 정적이 지배했고

바늘구멍만한 빛 스미어 올 때

곤충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거미줄에 매달린 물체

무아지경에 대롱거리고

거대한 공룡이 달려들고

따닥따닥 탈탈탈탈

-이봐요 눈 떠보세요-

-내 말 들리나요-

어렴풋이 딴 세상이 펼쳐졌다  
몽롱한 안개만 자욱하다

저승일까

몸뚱이 처절하게 침상에  
붙박이가 되어 있었다

숨쉬는거 말하는거 걸어다니는거  
거저 되는 줄 알았다

# 미래의 거울

- 천사요양원에서

양순례

황혼녘에 갔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 모였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생각까지도 건성입니다  
어른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기들이었습니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다독여 재워줍니다  
때로는 혼나는 아기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식성에 가족으로 부터  
잘못된 성격에 간병사로 부터

아픈 아기들은 환경으로 부터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자유가 뭘지 구속만이 보호입니다  
미래의 거울 속 나를 보았습니다  
흐릿한 거울 닦고 또 닦습니다

# 어린이 현장

엄정인

1968년 5학년 겨울  
교무회의를 마친 선생님들  
당황한 얼굴과 낮은 목소리들이 섞였다  
사내아이들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피맛을 본 들개처럼 웅성거렸다

근봉처럼 단단한 몸  
체조가 절로 되는 우렁찬 구령  
한글을 더듬는 꼴찌까지도 귀여워  
갓은 명분으로 상을 주시던 담임선생님

“조용히 못 해!”  
처음 본 성난 얼굴이  
낯설었다

비행장으로 공비\*들을 보러 가는데  
빨리 한 바퀴 돌아서 교실로 돌아가라  
특히 여학생들은 아무 것도 보지 말고

야외학습을 가는가 보다고  
나이털같이\*\*하는 병아리처럼 활개를 치려다가  
돌아보는 선생님 굳은 얼굴에  
스르르 날개를 접었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린이 현장\*\*\*이 새겨진 큰 바위를 지나  
군용 비행기가 자주 내려앉는 비행장에 다다랐다

아무 것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다 보였다  
거적도 덮다 말다 스물땃 명쫂م 되었던가  
달랑쇠 꼬챙이에 들춰진 가마니  
충을 맞았나 뱃속이 뻥하니 비었다

매골은 더럽지만

삼촌만큼 젊은 남자들  
순하게 눈을 감은 채  
잔설위에 자닝하게\*\*\*\* 던져졌다

특별히 빨강지는 않았다

어떤 이악스런 부라퀴\*\*\*\*\*들이  
우리 선생님 자존을 뭉개면서  
어린 우리에게 그 참혹을 굳이 보여주라고 했을까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었다는 황지비행장

\* 울진 삼척 공비 사건: 968년 11월 120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유격대 활동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사건.

\*\* 나이틸갈이: 짐승의 새끼가 태어날 때나 (병아리가 부화할 때 지니고 나온 털이) 성숙기에 이르러 빠지고 새로운 털로 바뀌는 일.

\*\*\* 어린이 현장 (1957년 발표)

전문 및 본문 9개항으로 제정되었는데, 전문은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옹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로 되어 있었다.

본문은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튼튼하게 낳아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하고, 위험할 때에 맨 먼저 구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결함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고,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닝하다 : 애처롭고 불쌍하여 차마 보기 어렵다

\*\*\*\* 부라퀴 : 제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비는 사람.

# 축제의 날

엄정인

시장님의 말씀에 이어 귀한 내빈 소개  
우리가락에 서양악기에 별별 구경거리 휘황한데  
차려입은 사람들은 떳떳하게 악수하고 사진 찍고

여든이 되어 찾아온 한글 너무 늦었다 화도 내련만  
할머니들 흐릿한 기억을 놓치랴 도전 골든벨도 올리고  
가랑잎같은 얼굴에 얹은 노을이 번진다

고갱이 없는 불꽃놀이가 꺼져갈 무렵  
하나뿐인 장애인반이 없어진다고  
담당했던 기관에서 귀뜸을 했다  
비용과 효율을 꼼꼼 따져보니  
달팽이가 속력이 너무 느리더라고

난생 처음 받아 든 사탕 한 알을  
껍질을 까기도 전에 되가져가다니  
한글을 몰라 버스도 못 타는  
하름송아지\*같은 눈망울들

제 아람치 가져가도 밭도 구를 줄 모르는  
엄마도 없는 성인 지적장애인

한 모금 햇살을 그늘진 곳에 나눠 주려고  
제 몸에 구멍을 숭숭 내는  
라피도포라\*\* 덩굴보다 못한  
마음 눈 먼 사람들

평생학습 축제의 날  
목에 감기는 찬바람  
든든한 털목도리를 하나 더 짜야겠다

\* 하름송아지: 한 살이 된 송아지

\*\* 라피도 포라: 스스로 앞에 구멍을 내어 아래쪽 앞에도  
햇빛을 닿게 하여 살아가는 덩굴식물

# 자라는 돌

윤옥희

시가 써지지 않는 밤  
출렁임 때문에 잠도 오지 않네  
돌이 자라기를 기다릴 뿐

암흑 같은 남북의 길목에서  
시가 다가와 말을 거네

호랑이와 범이 손을 잡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네

해와 달같이 변치 않는

돌이 자라기를 기다리네

## 초가을

윤옥희

햇살 아름답고 하늘이 푸른 계절  
코스모스 꽃잎 날린다.

풀잎에 이슬 매듭  
콩꼬투리 여무는 소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여우골 문살바람

폭염이 비껴간 하늘  
바람에는 나이가 없다.

# 생선 비늘

이미순

흔들리는 계수나무 옆에서  
돌멩이로 나무에 눈금을 그었다

고개를 빼죽 내밀고  
엄마는 어디쯤 왔을까

갈치의 비늘이 우수수 떨어 지고  
대가리가 바닥에 뒹구는 것을  
먼 발치서 바라보았다

생선 토막들이 텅강텅강 떨어졌다  
다시는 붙들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검은 비닐봉지에 하나의 생이  
흔들리며 갔다

부서지고 갇혀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 모화역

이미순

모화역에서 삼십리길  
할머니가 계시던 경북 외동면 모화리

이이숙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비둘기호에서 내렸던 역

비둘기 뱃속은 칠월이었지  
장날이면 생선냄새와 풀냄새가 어울리고 학생들의 가방  
과 커다란 고무통도 내려주던 역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금새 형이 되고 아우가 되어 악수하  
던 역

다리 아플 때마다  
아버지의 신발코에 앉아 덜컹거리다 내린 역

2007년 폐역이 된 모화역에  
곰방대 속 풍년초 비벼넣고 삼베옷 여미시던 할머니가 계

신다

폐역이 됐다고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지

## 몽당연필

이영숙

책상 위 필통 속 몽당 연필  
툼보우 4B가 연필가루를 쓰고  
빼곡히 들어있다

연필을 꺼내니  
교복 입은 아이가 따라 나왔다

한쪽 눈을 지긋이 감고  
석고상을 향하여 연필을 가누어  
데생을 한다

연필이 작아질수록  
선명히 살아나는 모습

곰슬한 머리칼 커다란 눈  
오뎅한 코 도톰한 입술

신화 속 얼굴들이

켄트지 속에서 살아나면

몽당 연필은 짧아가고  
손가락엔 굳은살이 박혔다

툼보우 연필과 교복 입은 아이가  
연필 가루를 뒤집어 쓰고  
필통 속으로 들어간다

책상 위 필통 위로 먼지가 앉고  
서른살 아이 손가락엔 말랑살이 돋았다

# 서리꽃

이영숙

칼바람 훑고 지난 자리마다  
통증으로 돋는 꽃

내딛는 발길마다 움푹움푹 패이고  
손 끝에 아린 눈물로 지는 꽃

눈 먼 태양에도  
흔적없이 사라지는

모진 삭풍 속에 핀  
서리꽃

# 술 아듀!

임형선

인연 없는 술  
저혈압 치료제로 한 모금  
절인 배추처럼 축 늘어져  
응급실로 실려 가 혈관 주사를 맞는다

로켓이 몸을 싣고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심장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무중력 상태  
연자방아에 매달린 사지는  
천 갈래 만 갈래  
산산이 흩어져 텅 빈 허공을 떠돈다

옆에 있는 구원투수 의사선생님  
나 좀 잡아주세요  
꼭 안아 주세요  
길거리 여인처럼  
나를 지탱하기 위한 하소연  
이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간절히 마구 토해 낸다

술주정으로 알고 웃고 있던 동생  
달기똥 같은 눈물로  
위급 상황을 가족들에게 타전하고  
사색이 된 의사 어쩔 줄 모른다

얼마를 지났을까  
분리된 로켓 얼음지옥으로 착륙한다  
부서진 몸뚱이 사시나무 떨 듯  
새로운 조립으로 하데스\*를 탈출한다  
주사 쇼크 요단강에 발 담그고  
저승의 나라에서 빠져 나왔다  
자존심도 체면도 잊게 했던 술  
영원히 아듀!

\* 하데스 : 죽은 자를 데려 가는 곳. 사나운 개가 현세로  
오는 것을 막고 있다.

# 그랜드사우나

장미순

고속터미널 건너 그랜드 사우나에서는  
출발 시간의 긴 꼬리를 밟고 난감한 여행객  
위생과 결벽을 신앙하는 사람들  
모두 공평한 6000원으로 관을 산다.

갑옷 벗어 관에 넣고  
철커덕!  
속세의 시간이 닫히면  
이름 대신 번호표를 매단 알몸들은  
소리도 공기도 젖어서 육중한 시간 속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당뇨병, 고혈압, 성 기능 개선……  
만병통치 효과 선전하는 글귀 붙은 탕 안에는  
그 글의 의미를 모르는 아이들이 놀고  
그 글을 믿지 않는 어른들은  
눈길을 피한 채 인내를 시험한다.

탕 옆에는 이태리 군단이  
피부 위 시간의 흔적과 사투를 벌인다.  
시간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먼지, 땀, 각질은 엉켜서 자라기 마련  
삶은 시간에 굴복하는 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시 쌓이는 때를 보며 죄를 묵상하고  
늘어진 배를 보며 나태함을 인정한다.  
돌아가지 않는 어깨는  
낫설어지는 몸을 달래며 살라고 충고한다.

그랜드 사우나에 가면  
시간에 앞에 겸손해지는 몸과 만난다.

# 아버지의 자존심

장미순

스무 살  
처음으로 퍼 올린 사랑  
싸늘한 비웃음에 더럽혀져  
오물통에 처박히고  
아닌 줄 알면서도 알랑거린 내가 미워  
여러 날 뜬 눈으로 나 자신을 노려보며 굶졌다.

스스로를 가둔 줄 알았지만  
나는 방문 밖에서 부서져 흩어졌고  
잠들 수 없는 아버지는  
방문 밖에 마음을 걸어두었다.

정신 차리니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

전쟁터 같은 세상 헤쳐 갈  
무기는 초등학교 중퇴 학력뿐  
어디에도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장남과 가장을 살아내신 아버지

사나운 마누라 기세에 눌리고  
허름한 옷에 일만 하셨던  
너무도 착해서 비굴한 아버지는  
화를 숨길 수 없었다.

남자 마음 한켠 구걸 말고  
하늘 저 끝을 봐라.  
이미 완전한 내 아기, 내 딸아.  
너는 애비의 자존심이다.

# 시산제를 지내고

전이식

1

해맑은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아  
선인들과 속삭이는 식장산 세천계곡

높지거니 한껏 차오른 수원지는  
모여든 웅달샘 수만을 이루어  
넘실대는 푸른 빛 풍요를 일구고

물방울 서려 추는 골 언저린 파란이끼 일어나 반기는데  
거침없이 손잡아 오르던 담쟁이덩굴은  
죽은 듯이 가닥만 드러낸 채 누굴 기리어 서 있느냐

산꼭대기를 틈워 향하는 가시덤불 오솔길엔  
돌 틈새 비집어 곱어진 생명에 질긴 뿌리가  
현신적으로 오가는 발길들에 디딤돌 되어주고

곳곳엔 낮선 얼굴이

가려진 초목에 숨어서 잠자듯 자라는데  
거들뜬 마음은 못 본 듯이 스쳐지나

이런저런 각색각양 바위와 돌맹이는  
말 못할 사연 가슴에 간직한 양  
골짜기 진토 박토에 제멋대로 틀어박혀 침잠하고

사시절의 낙엽은 자유로이 뒹굴어 쌓여 가며  
육신을 보양하고 영혼을 어루만져만 가는데

원시적인 천연의 양상이 그대로 내비쳐진 것이 이런 것  
일까?  
발걸음도 가벼이 그리도 찾아들게 되나니...

2

목 타는 잔혹한 가뭄에, 폭설과 매서운 추위에, 번개 치고

천둥하는 거친 비바람에...

가지 부러지고 기대어 넘어진 놈, 뿌리 뽑혀 자빠진 놈,  
썩어 빠져서 내려앉아 부서진 놈, 고꾸라져 쓰러진 놈, 가냘  
프게 겨우 멈추어 서 있는 놈, 제자리 서서 그냥 말라죽은  
놈, 그래도 끄떡없이 살아 곳곳이 서있는 놈...

스스럼없이 보여 주는 숲속의 모습

물, 일광, 양분, 공기...

몸부림치는 삼림이 구원의 아우성을 쳤나

어이하여 그리도!

어쩌다 그런 모습을

3

천연 바위바닥 정도를 솟구쳐 나와

요리조리 갈길 찾아 졸졸졸 살살 흐르는

청수엔 수정 같은 얼음 꽃 피어나고

곳곳엔 인고의 잔설 하얀 눈이  
산소의 품안에 녹아난 듯  
환호에 손짓을 보내며 부르짖어

끌고 끌리어 끌려드는 이곳인가  
밀고 밀리어 밀려나는 이곳인가

아니면 산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산을 좋아하는 걸까

자연 만물이 어우러지고 사그라지며  
잉태하는 조화와 순리의 보고이런가

## 황혼

주경숙

한바탕 퍼붓던  
소나기 물러가고  
저무는 하루

노을빛 등에 업고  
한밭대교 건너던 길

무심코 올려다 본 하늘가에  
환하게 미소 띤 무지개

긴 인생의 숙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불쑥 불쑥 찾아오는 슬픔  
바람이 말려 주니  
하늘의 위로가 넉넉하다

말갱게 씻긴 가슴열고

다시 사랑해야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 꽃비

주종헌

우수수

찰나의  
날갯짓

마지막  
웃음으로

쏟아지는  
함박눈

하늘에서  
땅에서

흘날리는  
꽃비를 맞으니

내가 꽃인지  
꽃이 나인지

# 돌 담

주종헌

서 있는 돌 열기설기  
어설프다 무너질 듯

좋다 멋대로 있어  
싫다 반듯한 맞춤은

다르다 얼굴도 표정도  
자리 잡고 편한 곳에  
태어난 곳은 개울가

골목길 속삭임  
간직한 돌담

# 시간이 하는 일

천상인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

너와 차를 마시고 거리를 걷다가  
늘 하던 인사를 했지

다른 바람이 불었고  
부는 대로 갈 줄  
나는 알았지

너를 보내고  
산은 돌아앉아 울었지.

# 허망한 복수

천상인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붉은 가시로 돌아나 손톱 밑을 찔렀다.

밤마다 묵묵히 베어낸 마음  
소리 없이 흐르는 피

달려 나간 한숨을 쫓다가  
모퉁이를 돌아 평화로운 우울과 마주쳤다.

외면하고 돌아선 그 길에서  
검은 죽음이 나비를 달고 팔랑거렸다.

우환을 당하지도, 만들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롭기만을 바랍니다.\*

너를 안는 순간 시작된  
그 모든 것.

\* 국립극단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희곡 대사 중에서 인용

# 이사

천영애

기다리던 날이 왔다.  
분주하게 움직인다.

빠진것이 있는가  
이리저리 돌아본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오십번의 이사  
매번 설렌다.

# 목주

천영애

생각나면 찾게되는 작은구슬

기쁨

슬픔

바람을 굴린다

사랑스런 하느님 고맙습니다.

# 가을

최재문

머플러에  
버버리코트 깃 세우고  
계절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길을  
여인이 걸어간다  
당신의 빈잔에 채워지고 싶어  
억새로 나부끼는 가슴안고  
들국화 눈빛 부딪치며  
가지가 휘는 낭창한 유혹  
꽃대 궁 긴 목을 뽑아  
회오리처럼 가슴 일렁여 놓고  
가는 길 떠나는 여인

## 고향

최재문

햇살이 성근 오후  
방안 가득히 쌓이든  
난향 한줄기 창을 넘보길래  
향기따라 뒤결을 돌아가니  
긴 그림자 낙원재 창안을 엿보고  
뒤딤돌 위 태사해에  
마음이 끌려 서당 안을 보니  
문방사우가  
잠언처럼 귓속을 후빈다

# 목소리

최진숙

양산 석계  
성묘 가던 날

아이고! 우리 막내딸 왔구나!  
버선발로 이 딸을 반기는  
엄마를 상상하며 천 리 길

영정 모시고  
석계묘원 들어서니  
먼, 먼, 그날처럼  
바람 소리가 나를 반기고

님의 분신인 언니들이  
반기더이다  
아! 엄마다 엄마!

저 목소리  
엄마가 저 딸들 속에 계시었군요

# 죽음 준비 없이 보내려니

하재순

하얀 가을꽃에 묻혀  
찾아오는 님들에게  
침묵으로 대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대문 앞에 들어서면  
음이 되어 들려오던 소리들

쫓그려 무엇을 그렇게  
동네 기술자 떠났다고  
굽은 허리 나무기둥 의지하고  
자식에 손을 잡고 와 배웅 합니다

떠나는 그대여  
인연으로 만난 사랑에 끈을  
어찌 두고 떠나는 건가요.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가슴 쫓기는 이 소리 들린다면  
사랑하는 가족 그 곳에서도  
지켜 주소서

이승에서 정든 모두와 영원한  
작별을 고 합니다  
님들이시여 부디 건강하소서

고통없는 곳에서 편안 하소서,

## 우물이 있던 곳

하재순

고향 마을에 돌탑으로 된 우물이 있었다

새벽같이 물 길러가는 엄마 따라 다녔다  
멀리서 보아도 우물에는 안개비가 내리고 있다  
흐르는 물로 세수하는 엄마 나도 세수를 한다

이웃 마을 아낙네들 빨래터에 모여 든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어떤 설움 비워내고 있는 것인가  
방망이 소리에 따라 그 마음을 알수있다  
찌든 마음은 거품으로 사라져 하나가 된다

우물 지킴 호랑이 할머니의 잔소리가 시작이다  
이 우물은 동네사람 모두의 식수이며 지나는 사람 모두가  
마시는 물이어

이제 사라져간 우물 터 폐인 주름에 그리움 한줄기로 흘러간다

지금쯤 어떤 꿈속을 적시고 있을까

사랑도 마셔보고 사랑도 떠나보낸 고향집 우물터가 그리  
워진다

# 백두산 천지에서

홍종승

조상의 얼이 흐르는 곳  
백두 하늘 아래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어  
압록강 푸른 물처럼  
끝없이 흐르게 하리라

만주 별관 봉천 땅  
한 민족 통일의 땀방울을  
천지 물에 섞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촉촉히 뿌리리라

우리 그 때까지  
대한의 함성을 지르고  
우리 그 때까지  
통일의 노래를 부르자

아~~

그 날, 그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만세의 합창을 소리쳐 외치리라

백두여!  
한라여!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만주 별판 말 달리는 소리  
칠 천만의 한 맺힌 이 소리

〈2018.7.13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 늘~이라는 말은

홍종승

나무 중에도 늘 푸른 소나무가 좋고  
친구 중에도 늘 만나는 친구가 좋고  
음악 중에도 늘 듣는 음악이 좋은 것은  
늘~ 이란 말이 나와 같이 살기 때문일 거야

늘 생각했어.  
늘 보고 싶었어  
늘 같이 있고 싶었어  
하던 여인이 뒤돌아 떠나갔을 때에도  
나는 늘 그녀를 담고 있었지.

그래서, 늘~이란 말은  
네가 내 곁에 없을지라도  
언제나 내 머리 속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거야  
내 시간 속에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지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을 때도, 잠시 여행을 할 때도

내가 마음속에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네가 눈앞에서 나를 마주 했을 때  
나는 비로소 늘~이란 말을 완성하게 되지

너랑 같이 늘 있으면 좋으련만  
나도 네가 싫을 때가 있지  
그 때는 늘~ 이란 말이 어색하기도 해  
그럴 때 나는 그냥~이란 말을 하지.

내가 너에게 “늘 보고 싶었어” 하는 마음이  
너도 나에게 “늘 생각했었어” 하는 마음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일거야



창성  
작인  
수대  
업상

# 산문

김순희  
김응순  
박인숙  
박종숙  
안시찬  
전갑재  
전이식

# 플라타너스

김순희

흔히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 버즘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이다. 공해에 강해 1910년경에 수입하여 가로수로 심어서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커다란 잎을 달고 있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이 나무의 속명 플라타너스(Platanus)는 ‘넓다’는 뜻의 그리스어 ‘플라티스(platy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버즘나무라는 이름은 불규칙하게 벗겨진 나무껍질의 모양이 피부병 중 하나인 버즘이 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이름은 첫인상이면서 그 속성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버즘처럼 딱딱지 않은 의미로 기억되는 이름을 굳이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나무의 특징이나 재미있는 표현을 위해서 또는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면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좋은 느낌이 담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북한에서는 이 나무에 탁구공크기의 씨앗방울이 달려서 방울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버즘나무 보다는 오히려 방울나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

씨앗들이 방울 모양으로 뭉쳐서 나무에 달려 있다가 봄이 되면 땅에 떨어져 여기저기 수많은 자손을 남기고 싶은 방울나무, 이 나무에는 나의 추억도 방울방울 매달려있다.

먼저,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세계 곳곳에서 가로수로 널리 심고 있다는 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행복했던 그 날로 순간이동하기 위한 아이콘으로, 내방 컴퓨터에는 아주 작은 플라타너스단풍잎 그림이 붙어 있다. 그 잎사귀는 전체가 노랑계 단풍이 든 상태에서 녹색과 붉은색이 살짝 덧입히듯이 채색되어 여러 가지 색깔을 자아낸다. 마치 그 날의 오묘한 느낌처럼.

작년 5월 말 뉴질랜드 어느 사거리에서 본 그 플라타너스나무가 있던 아름다운 풍경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나라로 출발하기 전의 우리나라는 초여름이어서 반팔차림이었지만 열 시간 넘게 걸려서 간 그 곳은 완전한 가을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빌딩숲으로 된 도심을 지나서 마주한 그 곳의 밤풍경은 나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계절 속으로 들어와 서 있는 그 상황은, 마음이 허공에 붕 떠 있는 듯해서, 환각제를 먹었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단풍든 플라타너스나무가 있고 아래에는 노랑과 주

황색의 칸나꽃이 피어 있으면서 길바닥에는 갈색 플라타너스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가로등으로 인해, 위는 노란 단풍등을 켜놓고 나무 아래는 칸나꽃등을 켜서 장식해 놓은 것처럼 화려했다. 그 날 야간 불빛 아래의 연주향빛과 드문드문 녹색빛이 가미된 플라타너스잎은 은은하면서 강렬한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로 지금까지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다.

초등학교 때의 기억도 생생하다. 플라타너스는 학교 가는 길 양쪽에 가로수로 주욱 열지어 서서 우리를 반겨주었고, 학교 운동장 둘레에도 마치 테두리처럼 둘러 서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주던 조희대 옆의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나무에 대한 기억은 더 생생하다. 그 나무는 둥구나무라고 불렀고, 우리들의 단골 약속장소가 되기도 했던 추억의 나무다.

여름 땀별 조희시간에는 그 둥구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교장선생님이 긴 훈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은 수돗물을 틀어 놓은 것처럼 계속 이어져서 학생 한 명이 갑자기 픽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가야만 끝날 때가 많았다.

요즘처럼 낙엽이 지는 계절의 플라타너스 큰 잎사귀는 운동장 청소 당번의 귀찮은 존재가 되고, 겨울에서 초봄까지는 푸른 하늘에 둥그란 방울 무늬를 만들다가 그 열매가 떨어지면 개구쟁이 아이들의 좋은 장난감이 되기도 했다.

또, 그 나무로 만든 몽둥이는 줄기가 나는 곳의 울퉁불퉁한 굴곡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고 한 어떤 남학생의 이야기도 생각한다. '사랑의 매'라는 억지이름으로 불렸던 그 회초리로 맞으면 훨씬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밤 10시에 선생님이나 선배가 기숙사 복도에서 그 막대기

를 질질 끌고 다니면 그 소리에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껴서 얼른 소등을 하고 잠자리에 누웠다고 한다.

또한 그 나무는 나의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회날에 청군 백군의 그늘 쉼터가 되기도 했고, 운동회가 끝나면 그늘 아래에 돛자리를 깔고 학부 모들과 함께 싸온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던 정겨운 추억이 묻은 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곳곳의 가로수로 위용을 떨치던 그 시절의 나무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추억의 나무가 되었다. 그 많던 플라타너스 나무가 왜 베어져 나갔을까? 한 때 어린잎의 뒷면에 난 털과 이 나무의 씨앗털이 날려서 기관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이 베어진 원인이 되기도 했고, 잎사귀가 커서 청소를 하기에 번거롭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 어린잎에 난 털은 특히 더 오염물질을 잘 흡수해서 공기를 맑게하는 역할을 하므로, 플라타너스의 넓은 잎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다른 어떤 나무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까지 씨에 붙어 있는 털을 꽃가루병의 원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이 씨털에 먼지가 묻어서 날아다니므로 비위생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털은 꽃가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질환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나무의 잎과 잎자루에 있는 흰색 털은 미세 먼지와 오염물질을 잘 흡착하여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하므로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적합한 나무다.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광합성을 하면서 들이마시는 이산화탄소 양이 하루 평균 4킬로그램에 이르고, 내뿜는 산소의 양도 약 3킬로그램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어른 4명이 하루 종일 맘껏 숨 쉴 수 있는 산소의 양이라고 한다. 그만큼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유익한 산소를 많이 내뿜는 것이다. 증산작용도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플라타너스 한 그루는 하루 약 400그램의 수분을 내뿜는다고 한다. 물기가 증발하면서 둘레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나무 근처는 항상 시원한 것이다.

옛날에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버즘이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처럼 버즘나무도 자꾸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자, 주변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플라타너스는 옛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

플라타너스와 똑같은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에 제법 덩치 큰 은행나무 가로수가 마구잡이로 베어져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본 적이 많이 있었다. 사계절 중 단지 한 때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일부 민원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베어져나간 나무가 아무 쓰임새 없이 그대로 버려졌다는 뉴스도 접했다.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오랫동안 자란 나무를 한 순간에 마구 베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데, 사소한 단점 하나로 쉽게 버려지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비효율적이다. 긴 시간의 축적물들이 한순간의 판단 오류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예전에 서양에 갔을 때 고목나무의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고,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많았다. 오래된 역사와 건축물들 못지않

게 고목도 그 나라의 첫인상을 아주 좋게 한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사원을 뒤덮던 거대한 나무와 더불어 포르투갈의 코르크나무와 참나무, 스페인의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나무밭과 비에 젖어 더욱 진한 향을 품어대던 오렌지나무 가로수만큼, 뉴질랜드의 곱게 단풍든 플라타너스 나무의 아름다움도 잊혀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가로수도 이것저것 섞어서 심는 것보다는 도로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 곳의 특색이나 성향에 맞게 차별화하여 가로수를 키우고 정비했으면 좋겠다.

은행나무길, 플라타너스길, 벚꽃길, 이팝나무길 등으로 계획적으로 정비해서 키우면 더 멋지고, 관광 상품화까지 가능한 멋진 길들이 탄생하리라 본다.

길의 상품화도 멋진 도시계획의 한 부분이며, 어떤 자원 못지않게 좋은 관광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

# 괜찮다

김응순

별초하는 날, 나는 새벽부터 핑계 삼아 먹고 싶은 명태전도 부치고, 야채전도 부치고, 막걸리도 한 병 샀다, 챙이 넓은 모자를 꼭 뒤집어쓰고, 두툼한 수건을 목에 두르고, 긴 장갑을 끼고, 장화까지 신고 우리 부부는 완전무장을 했다. 산소에 도착하자 부모님께 먼저 예를 갖추고, 남편은 예초기를 익숙하게 등에 메고 작업을 서둘렀다. 나는 말없이 잘려나간 그 풀을 갈퀴로 긁어모아 멀찍이 내다 버리기를 반복했다.

무덤 가까이 있는 밤나무에는 탐스런 밤송이가 매달려있었다. 그것을 당장 떨어낼 욕심으로 남편은 새참 먹는 것도 잊은 채 주위 싸리나무 숲마저 더 깎아나가는데, 그 속에 살고 있던 말벌 집을 그만, 잘못 건드렸나? 성난 말벌들이 제집을 찾느라 여기저기 흩어져 날아다니는 중에 한 마리가 남편팔뚝에 앉고 말았다.

남편은 너무 놀라 황급히 벌을 쫓으려 했지만 벌에 쏘이고 말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른 스마트폰을 빠르게 찾아 검색을

시작했다. 벌에 쏘이면 쏘인 부위는 주변 살갓이 부어오르고, 대부분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나와 있으나, 여러 차례 벌에 쏘이게 되면 독성 반응으로 구역감, 구토, 설사, 어지러운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나와 있었다.

“여보, 대부분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래요. 당신은 구토나 설사 같은 것도 안하고 괜찮아 질 거예요.” 나는 당신은 단 한 방만 쏘였으니 “괜찮아, 괜찮아” 그 말만 자꾸 되풀이 했다. 그러나 남편은 겁에 질린 듯 하산을 서둘렀고 “아무소리 말고 빨리 차 타!” “당신, 괜찮은데 왜?” 나는 남편에게 “마져 끝내고 내려가야지, 짐도 챙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채 내려가면 돼!” 라고 반문하면서도 차에 탔다. 남편은 무엇에 이끌리듯 차를 몰고 빠르게 가파른 산길을 내려와, 막 휘어진 모퉁이 길을 돌 때, 거기서 갑자기 차를 멈추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나는 정신없이 시동을 끄고 남편의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치며 흔들어도 남편은 두 팔을 늘어뜨린 채 눈을 뜨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숨소리가 수상했다. 나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미친 사람 처럼 몇 번 남편을 흔들어 깨우다, 길가를 바라다보다, 그렇게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나도 덩달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늘도, 나무도, 구름마저 한꺼번에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로 나를 휘감는 것만 같아 ‘이젠 꼼짝 없이 죽었구나!’ 라고 한숨 쉴 때, 응급차가 도착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성구조대원은 빠르게 남편의 입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팔에 링거주사를 놓았다. 차는 거침없이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달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무슨 말인지 서로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알 수 없는 링거주사들을 팔에

꽃고, 그것도 모자라 허벅지에까지 주사를 찔렀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지켜보려고 환자 보조의자에 가까이 앉아있었다.

정신없이 앉아 있는데 문득, 병명도 없이 뼈마디마다가 너무 아파 뜯 눈으로 밤을 새우던 때가 생각났다. 밥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나에게 “당신은 이길 수 있어 무엇이든지 잘하잖아!”라며 원기를 회복시켜 주려고 보양식집으로 나를 이끌고 가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 거렸다. 그 평범한 일들이 조금씩 모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는데!…… 만약에 지금 혼자가 된다면? 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한나절이 지나니 남편은 잠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남편은 거짓말처럼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 있었다. 나는 물린 팔 부위를 다시 보았다. 산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별경게 통통 부어 올라있었다. 남편은 퇴원한 후에도 며칠 동안 팔뚝의 통증으로 인하여 힘들어 했다. 다행히 공들여 얼음찜질한 덕분인지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은 “괜찮아, 이제 다시 살아났어, 통증도 거의 다 사라졌어.”라고 말했다.

하마터면 삶과 죽음이 엇갈릴 뻔했던 짧은 순간의 일. 지옥과 천당을 오가던 남편에게 “괜찮다, 괜찮다”라는 말만을 되풀이 했던 나 자신의 용렬함을 자책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더 많이 늙을 때까지 당신을 마음껏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오히려 남편이 나를 위로해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하사탕을 입에 문 것처럼 화해지면서 온 몸의 세포가 다시 생기가 솟아나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다.

울다가, 웃다가, 몸살을 앓다가, 난 오늘 다시 남편에게 주절댄다. “그런데 당신, 그거 알아요. 내말에 귀를 세우고 듣는 당신만 있으면 괜찮다는 말, 그 말은 나의 진심이라는 거.”

# 가을 엘레지

박인숙

베이지색 벽지가 한 십 년쯤 바래면 저런 색깔일까? 개나리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곱색도 아닌 중간색의 한복 치마저고리. 그 위로 덧입은 것은 연한 하늘빛에 점점이 별 모양 반짝이가 찍혀있는 양장식 조끼다. 앞자락은 십 원짜리 동전만 한 군청색 단추 다섯 개로 꼭꼭 여미었다. 버튼목이 보이는 흰색 슬리퍼는 코가 살짝 올라와 있고 뒤 굽은 5센티쯤 될 것 같다. 뒤꿈치가 없으니 마땅히 슬리퍼라고 해야 할 그런 버전 위에 신는 신발이다. 손에 든, 가로 30센티 세로 20센티쯤 되어 보이는 토트백은 옷 색깔 보다 조금 더 짙은 누런색. 시쳇말로 깔 맛춤이다. 머리카락은 완전한 백발, 짧은 커트에 머릿기름을 발라 곱게 빗어 넘겼다. 검정 뿔테에 흰색 다리가 달린 안경을 단정히 쓴 모습은 아흔의 나이에 도 아직은 정정해 보인다. 아니, 정정하다기보다는 야물딱져 보인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겠다. 150센티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은 키에 뽕뽕한 몸매는 이제 서서히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가끔 허리를

뒤로 쪽 펴고 넓적한 콧잔등을 벌름거리며 입술을 앙 다물 때면 아직도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자세가 나온다. 아마도 며칠 전부터 들떠서 준비 하였을 것 같은, 한껏 멋을 부린 시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러나 역시 나 이는 못 속이는지 걸을 때면 자꾸만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서야 겨우 발걸음을 떼어놓는다. 야속하게도 다리는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모양이다.

오늘은 내가 사는 D시에서 예식이 있는 날이다. 시어머니 친정 언니의 아들인 조카가 예순아홉 살의 늦은 나이에, 2녀 1남중에 막내 외아들을 장가보내는 날이다.

시어머니의 언니는 이미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떴다. 이제는 시댁 쪽으로 보나 친정 쪽으로 보나 그녀가 제일 어른이다. 아래로 손주, 증손주들이 몇 명인지는 한참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 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래도 집안 대소사, 남의 집 가정사까지도 ‘감 뇌라 배 뇌라’ 참견하길 좋아하고 무슨 일에든지 아는 척, 앞장을 서야만 마음이 흡족한 양반이다. 그 나이쯤 되면 이젠 뒷전으로 물러나 자손들의 사는 모습이나 보면서 사는 게 순리이건만 아직도 어른 노릇이 하고 싶은 건, 혹시 뒷방 늙은이로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 어찌면 충충 시하侍下, 가부장 제도 아래서 억눌려 살아온 팔십여 년의 평생을 이제라도 보상받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칭 양반임을 자랑삼는, 이조 오백년을 이어온 왕족. 전주이씨 OO파 OO세손, 그 대단한(?) 집안으로 열 다섯 살에 시집온 그녀는 칠남매의 다섯째 며느리다. 온 가족이 한동네에서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동성촌락, 철저하게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그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호랑이로 소문난 독선적인 남편, 그녀는 그런 분위기에서 거의

60년을 넘게 살아왔다. 그 지엄하던 남편은 일흔두살에 자리에 눕기 시작했고 그녀는 꼭 10년을 남편 병수발을 해 왔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8년을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곳은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고, 그녀는 이른바 ‘혼족’을 선언했고, 여덟 평짜리 원주민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동안 같이 살자는 큰아들과 다른 세명의 아들들의 권유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말한다.

“내몸 움직일 수 있을 때 까지, 내손으로 밥 끓여 먹을 수 있을 때 까지 이렇게 있을께. 그러다가 밥도 못끓여 먹게 되면 그때는 너이 집에 갈께”

자유롭고 싶었을까? 아니면 원래 성품이었을까? 그녀는 교회, 노인정 등에서 가는 나들이, 이웃의 대소사, 심지어 다단계 홍보관까지, 갈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다 쫓아다니며 산다.

D시에서 시어머니가 사는 S시까지의 승용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한 시간은 족히 걸리는 곳이다.

“늙은이가 거긴 뭐 하러 가니, 너희나 갔다 와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틀 전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왔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가야겠다. 지 엄니도 애비도 없는데. 그것이 월매나 마음이 폭폭할께. 내라도 가 봐야지. 틀림없이 나를 지 엄니로 생각하고 지돌릴 께. 그니까, 나 데리러 와라.”

언제나 그렇듯 찌렁찌렁한 목소리, 누구에게나 명령하는 듯 한 지휘관 같은 목소리.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도 아니고 ‘나 데리러 와라’이다. 과연 그녀다운 말투다.

“노인네, 고만 안 가셔도 될 것이구먼, 나만 가면 될 것을...”

툼툼거리는 남편과 함께 한 시간 길을 달려온 시어머니 집이다.

그녀는 식탁 위에 있는 머플러 두 개를 들어 보이며 나에게 묻는다.

“워편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니?”

“둘 다 괜찮은데요. 그래도 저쪽 것이 나은 것 같네요.”

둘 다 비슷비슷해서 그게 그것 같지만 나는 노란색에 갈색 무늬가 있는 좀 더 긴 머플러를 가리켰다.

그래도 미심쩍은지 그녀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것저것 머플러를 들었다 놔다. 묶었다가 풀었다가를 두어 번 하고서야 문을 나선다.

“아차, 양산.”

“차타고 가는데 양산은 뭇 하러 가져가세요?”

“아녀, 그래도 필요할지 모르자녀”

드디어 집을 나선다. 차에 올라 출발을 하자마자 또 한마디 한다.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혀. “

“.....”

“저기 저 사람 서 있는데서 조금 더 가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길을 다 가르쳐 주는 기계가 있으니깐 운전수가 알아서 가요.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러? 늙은이가 뭐 알것어? 가만있어야지.”

잠시 입을 다무는가 했더니 삼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입을 연다.  
‘조오기. 외국사람 서 있는 데로 가야 디는디?’ 하며 대형 마트 앞에 있는 커다란 외국사람 모형 마네킹을 가리킨다.

‘나 아직 이만큼 정신 말짱하다’ 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기억력의 존재함을 매 순간 확인해야 할 만큼 불안해서일까?

주말이라서인지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자동차 정체현상은, 예식이 있는 D시에 들어서자 더욱더 심해졌다. 예식장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마치 사람들의 인내심 한계를 시험하는 시험장인 듯했다.

시내의 한복판에 있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예식은 진행 중이다. 주례 없는 식순은 양가 혼주들이 인사말을 읽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었다. 부랴부랴 축의금 봉투를 내밀고 식권을 받아들고 식장 의자에 앉았으니 당연 혼주와는 대면도 하지 못하고 인사도 못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일찍이 도착한 세 살 아래의 시누이와 합석을 했다.

옥상 야외 예식장이다. 남은 자리는 햇볕이 쨍쨍 쏘이는 자리뿐이다. 아무리 가을 날씨지만 햇볕은 따갑다.

어느 결혼식에서건 주례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마는 역시 혼주들의 인사말도 지루하긴 마찬가지다.

신랑신부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겠지만 그동안 결혼식 하객 노릇에 지친 일흔 살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장난 같기만 하다. 판에 박은 듯 한 예식 순서. 자신도 없으면서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뻔뻔한 혼인 서약,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똑 같은 모습의 사진 찍기. 계들 듯, 빛 갇듯 찾아와서 봉투 내밀고 밥 먹고 흠어지는 하객들.

아침부터 설쳐대서인지 배가 고프다. 오후 2시 예식이니 아마도 하객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드디어 폭죽이 터지면서 신랑 신부 퇴장이

끝났다. 약삭빠른 시누이는 얼른 식당으로 달려간다. 이미 가방과 머플러 등 소지품으로 자리를 맡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보인다. 다시 식당으로 가 보니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쭈뼛쭈뼛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리를 잡느라고 분주하다. 혼주는 이모보다도 더 백발이 성성하다. 게다가 유달리 뚱뚱하고 배가 나온 그는 안쓰러울 정도로 느린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챙기기도 힘들어 보인다. 누구 한 사람도 시어머니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혼주의 나이 너무 많고 이미 위로 두 딸의 혼인을 치른 다음이라서 그런지 친척들도 많이 오지 않은 듯하다. 시어머니와 인사한 사람은 달랑 한 사람, 역시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혼주의 누나 되는, 즉 같이 늙어가는 듯 보이는 시어머니의 조카뿐이었다.

나는 겨우 그 사람 옆에 시어머니를 세워놓고 식당으로 왔다 자리를 맡고 있는 시누이가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시누이는 자기 어머니의 자리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다시 시누이가 식당 안으로 갔다.

“아이고 노인네 폐백 받을라고 기다리고 있었디야. 근디 다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안 보인 디야.”

시누이는 겨우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부축하고 돌아왔다. 혼주는 식당으로 한번 들어오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만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다. 시어머니는 엉거주춤 일어나 손을 내 저었지만 조카는 보지 못했는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허겁지겁 우리는 배를 채우고 일어났다. 무언가 아쉬운 듯 시어머니는 다시 한 번 옆에 있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이미 썰렁하

다. 마지막 폭죽이 쏘아낸 오색 반짝이 테이프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어질러진 의자들 사이로 가을 햇볕만 짹짹 내리쬐이고 있다.

“인사도 할 것 없씨유. 그냥 가면 되는 기유.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기유.”

아들은 씩씩한 미소를 흘리며 어머니를 앞질러 주차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딸은 어머니의 팔을 부추기고, 어머니는 지팡이를 꺾꺾 짚어가며 아들의 뒤를 따른다. 우리가가 마지막 손님인지 복적이던 주차장마저 역시 썰렁하다. 시어머니는 차에 오르면서 자꾸만 벗겨지려는 하얀 슬리퍼를 손으로 벗어든다.

“폐백 받으라고도 안 해유?”

아들이 묻는다.

어머니는 이미 예의 그 자신감에 찬 목소리가 아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웅얼거린다.

“그니까. 폐백 받을라고 준비는 다 해갖고 왔는데. 돈도 오만 원 봉투에 넣어갖고 왔는데...”

집으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만 차창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풀풀 날리고 있을 뿐이다. 말하지 않아도 사십오년 지기 며느리인 나는 짐작한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 같은 이모님 이셔유’ 하면서 새 사돈댁 한테 정중히 인사를 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집안의 제일 어른으로서 가장 먼저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폐백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따갑던 햇볕도 서서히 시들어가는 가을날 오후다. 도로 옆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날린다. 우듬지에 유난히 노랗고 커다란  
이파리 하나가 햇볕을 받아 반짝인다. 바람과 사투를 버리는 듯하다.  
'나, 아직 살아있다' 라고 소리치는 듯...

## 0번 할매 버스

박종숙

월요일 새벽 4시 30분에뇨의를 느끼고 잠이 깼다. 화장실을 갈까 말까 망설이며 조금 더 자려고 뒤척이고 있었다. 그 때 열린 문틈으로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남편이었다. 혼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났나? 깜짝 놀라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무슨 일 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 어제 신도 시장에서 캐리어 안 가져 왔다는 게 지금 생각나서 말이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 바보처럼 정신 줄 놓고 살고 있네”

“아차, 나도 깜빡했네. 애고, 아까워라. 시장바구니 잃어 버렸어. 누군가가 버린 줄 알고 주어 갔겠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잊어 버려요.”

날이 밝으면 신도 시장으로 시장바구니를 찾으러 가야겠다.

어제 신도 시장에서 구석에 시장바구니 세워두고 장을 봤다. 두부 세 모, 막걸리 한 병, 부추 한 단을 샀다. 부피가 얼마 안 되었다. 계산을 할 때 점원이 봉투 필요한지 물어보았다. 필요 없다고 하고는 문 앞에 매달아 놓은 공짜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왔다.

“애들만 데리고 갔어도 캐리어 생각 했을 텐데…….”

“내가 첫 애 임신해서 배가 불렀을 때 어머니랑 중앙시장에 장 보러 갔었어요. 그 때도 아마 추석이 가까웠을 거예요. 인천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시동생이 추석 쇠러 오면 준다고 어머니가 슬리퍼를 샀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시골버스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깔고 앉으라고 슬리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고 앉아 있었지요.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홀몸이 아니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기가 엄청 불편했거든요. 버스가 오자 무심코 그냥 버스를 탔어요. 집에 와서 물건 정리하다가 슬리퍼를 정류장에 두고 왔다는 걸 알았어요.”

여태 잊고 있었던 잃어버린 슬리퍼와 시어머니께 혼났던 것이 생각났다.

어제 장 보고 받아온 영수증을 찾았다. 혹시 영업시간이 적혀 있을까 찾아보았다. 없었다.

“날 새면 전화해 봐야지. 몇 시에 문 여나?”

“전화 할 것 없어. 날 새면 가 봐야지. 아침운동으로 걸어서 가 볼 테야.”

아침에 신도 시장으로 장바구니를 찾으러 갔던 남편이 허탕을 치고 돌아 왔다. 씹쓸해 하는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부추에 풋고추 찢어 넣고 전을 부쳤다.

“막걸리 안주로는 역시 부침개야. 어제부터 막걸리 한 잔 하고 싶었

는데” 하면서 남편은 맛있게 먹었다. 둘은 사이좋게 막걸리를 딱 한 잔씩 나누어 마셨다. 나도 적당히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았다.

텔레비전에서는 ‘0번 할매 버스’를 방영하고 있었다. 시골버스인데, 버스도 늙었고 기사도 늙었다. 손님도 대부분 시골 할머니들이다. 할머니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때 이용하는 버스였고, 물건을 못 다 판 할머니들은 기사한테도 물건을 팔았다.

우리도 텔레비전 속의 ‘0번 할매 버스’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 첫사랑

## 안시찬

학예회가 열렸다. 검정 비로도 치마저고리를 입은 선생님의 고운 손이 검고 하얀 건반 위를 나비같이 날아다니면 나는 종다리처럼 노래를 불렀다. 둘은 손을 잡고 관객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박수가 터져 나오며 막이 내렸다.

풍금 하면 선생님 노래하면 나, 우리는 둘도 없는 짝꿍이었다. 학교 길도 둘이 같았다. 학교에서 30여 분을 걸으면 우리 동네가 나오고 10여 분을 더 가면 선생님이 사는 마을이 있다. 선생님은 일 년 열두 달 하얀 쌀밥만 먹고사는 부잣집 무남독녀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면 으레 우리 반 교실 문을 빼꼼히 열며, 나와 눈을 맞추고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책 보따리를 둘러메고 교실을 나갔다.

운동장에 나가면 나는 한 살배기 우리 집 흰둥이처럼 선생님 주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

어느 날 신바람이 난 나는 깨금발로 하늘을 쳐다보며 짹짹뛰어 가다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내 몸을 일으켰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나는 창피스러운 마음에 선생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외로 돌렸다.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약방으로 급히 데리고 갔다.

약사 아저씨가 이마의 상처 부분을 쳐다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며 소독약과 연고를 챙겨주었다. 선생님이 탈지면에 빨간 소독약을 묻혀 상처 부분을 닦아냈다. 내가 아프다는 시늉을 하며 눈을 찡그리자 호호 입김을 불어주다 내 머리에 살짝 꿀밤을 메기고, 연고를 발라주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손을 잡고 가을 길을 걸었다. 선생님이 가던 길을 멈추며, 야! 네 잎 클로버 다하며 소리쳤다. 클로버 잎을 따서 반지를 만들어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살며시 끌어안았다.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선생님이 “혹시! 혹시 야!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해. 알았지?” 하늘을 쳐다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선생님 왜요? 어디 가세요? 그리고 왜 우세요?”

“울긴. 눈에 뭐가 들어갔네, 자 이제 그만 가자.”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빨리 오셔야 해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높은 가을 하늘에는 기러기 한 마리가 짝을 잃었는지 힘든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한 달이 좀 넘어서였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 교실을 다 빠져나갔는데도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교실을 나가 교무실 창문 틈으로 안을 기웃거렸다. 그때 다른 선생님이 나오며 “너 김 선생 기다리는구나, 오늘 선생님 안 나왔는데”하며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다.

터벅터벅 운동장으로 걸어 나왔다. 선생님이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 몇 번을 돌아보았다. 현관 옆 커다란 단풍나무에서 이따금 빨간 단풍잎이 하나둘 날리고 있었다.

혹시 선생님이 냇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넘어져 다친 건 아닌지. 밤새 콜록거리며 감기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그날 밤 꿈에 선생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난데없이 허공을 활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선생님을 낚아채어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나는 목이 터지라고 선생님을 불러 댔지만, 독수리는 까만 점 하나를 갈고리에 매달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엄마 어떡해 선생님! 우리 선생님!” 나는 연신 선생님만 불러댔고, 어머니는 악몽에 시달리는 나를 흔들어 깨우며 이마에 후줄근히 내리는 땀을 씻어주고 있었다.

그 후 나는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없었다. 뱃속에 암 덩어리를 안고 숨을 거뒀다는 풍문만 들었을 뿐... 첫사랑은 사랑한 것만큼 아팠다.

# 가을 여행

## 전갑재

상추객이란 말은 어학 사전을 검색해도 없고, 상춘객이란 말만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옛 사람들은 가을 보다는 봄을 즐기는 나들이가 잦았던가보다. 그런데 한편 ‘봄별에는 머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별에는 딸을 내 보낸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봄바람 보다는 가을빛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 했던 것 같다.

가을을 보라! 하늘, 산, 들, 바람, 하나도 싫은 게 없다. 산을 보면 오색 빛깔의 단풍잎이 위풍당당하게 바람에 훑날리고, 들녘으로 눈을 돌리면, 황금물결 넘실거림이 흡사 어깨를 들썩이며 덩실덩실 춤사위를 벌이는 듯하다. 하늘은 수정처럼 맑고 남보석 빛깔로 유난스럽다. 여름 지난 바람은 꿀보다 달다.

아- 가을이 나를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한다. 어디든 달려가서 가을을 안아보아야겠다. 가을 위에 덩석 눕고 싶다.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친구들이다. 분기별로 모

여 하룻밤을 보내며 웃놀이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도 나누고, 애환을 함께 할 정도의 40년 지우로 한 식구 같은 친구들이다.

“여보게들! 우리가 70대가 되었으니 다리 힘 더 빠지기 전에 해외여행이라도 해봅세.”

“그러세”

일치된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결정하고, 논란 끝에 중국 계림으로 장소가 정해졌다. 가슴 설레며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에 15명이 저마다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에 모였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들뜬 마음도 있지만, 익숙지 못한 타 문화권에 간다는 것에 대한 적잖은 부담과 두려운 마음도 한구석에 자리하는 듯했다.

계림의 첫날,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여행길에 비라니 그동안 들뜬 마음이 슬그머니 사그러든다. 그렇다고 비싼 돈 내고, 여기까지 와서 호텔 방에 죽치고 앉아 고스톱이나 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우리는 급하게 우산을 준비하여 일정대로 움직였다.

계림이란 계수나무가 많아 계림이라고 한단다. 가로수마다 계수나무가 넘친다. 계수 꽃들이 나리는 비를 맞으며 수줍은 듯 얼굴을 살포시 숙이고 있다. 이만 때면 계수 꽃향기가 천지를 진동한다던데 향기마저 빗물에 씻겨 흘러갔는지 계수 향에 취해 보지 못했다.

계림의 산은 한국산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산은 부드럽다면 계림산은 날카롭다. 한국산이 여인의 가슴처럼 몽실몽실 하다면 계림산은 송곳처럼 하늘을 찌를 듯하다. 금강산이 1만2천봉을 자랑한다면 계림산은 무려 3만6천봉이란단다. ‘이강’에서 배를 타고 좌우에 끝없이 펼쳐진 풍광을 넋 놓고 바라본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져 나온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한 폭의 잘 그려진 산수화를 보는 듯했다. “계림에 가면 누구나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산속에 폭 파묻혀 속세를 잊어버리고도 싶고, 봉우리 정상에 올라 하늘을 만져보고도 싶다.

케이블카로 오르는 ‘요산’은 정상에서 천하제일의 절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곳이다. 자욱한 안개로 절경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에 속이 타들어 가는데,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신비의 속살을 들어낸다. 정말 중국인들도 ‘죽기 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장엄한 산들이 안개와 짝을 이루어 물결치듯 한다.

여행에는 언제나 먹을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서 몇 년 전 먹었던 음식은 짙은 향신료로 우리 구미에 맞지 않아 넘기기가 역겨웠는데, 지금은 한국 손님이라면 한국인의 기호에 맞게 요리하여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역시 또 하나의 상술인 셈이다.

3박4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비로인해 여행을 망칠 뻔 했지만, 소낙비가 가랑비로 바뀌어 보슬보슬 내리는 가을비의 정취에 색다른 여행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역시 가을은 여행의 계절이다. 인천 국제공항을 향해 발길을 돌리려니 아쉬운 발길이 무겁기만 하다

# 태양방아

## 전이식

내가 어디를 오고갈 때 자주 지나다니는 우리 집 인근의 한 도로가엔, 낮고 작달막한 슬라브지붕 집들이 여러 채 늘어 서 있었다. 그 중에는, 도로 한쪽의 담을 헐고 본채 옆에 튀어난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는 가택이 눈길을 끌었다. 이름 하여 '태양방아'란 간판을 달고 젊은 시절부터 자영업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 가구이다.

좁고 크지 않은 가옥이었지만 내외가 얼마나 집치장을 하며 알뜰히 사는지 몰랐다. 단적인 예로 유실수와 작물, 화훼류를 심어 잘 어울리게 키우는 일이다. 별다른 공간이 없음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나 할까? 담 안팎과 옥상에 필요한 식물을 조화로이 가꾸는 것이다.

그 가운데, 큰 화분에 심어진 토란은 유달리 시선을 끌었다. 예부터 땅속의 보약이라 했고, 우거진 잎줄기를 왕성히 펼치며 옥구슬을 굴리며 자라선지 모르겠다.

방앗간 오른편 길가엔 개나리가 심어져 있었다. 가지가 담벼락 위로

기어가듯 길게 자라났다. 이른 봄, 그 어느 곳보다 일찍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활짝 피어나 보인다. 길손들에게 어떤 속삭임을 하며 밝고 고운 얼굴로 반겨 인사하듯이….

또, 왼편 한쪽에는 시골 산골짜기에서나 볼 수 있는 으름덩굴이 싱그러웠다. 보조기둥에 기댄 채 방앗간 외벽과 옥상난간을 뚫어 오르며 짙은 미소를 띠운다. 신장 같은 생김새에, 약성 뛰어난 열매가 익어가는 정취를 도심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곁에 가서 눈여겨보며 따보고 싶을 정도로 호감을 불러일으키니….

거기에 남향 한쪽 창밖은 크고 작은 호박과 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하다. 식용이나 관상용인데, 정답게 여물어가는 광경이 평화롭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외에도 채송화, 접시꽃, 칸나 등이 웃는 낮으로 생기발랄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집 앞을 오가는 행인들에게 좋은 눈요기 거리로 비쳐지는 것이다. 그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인가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기에….

그런가 하면, 노부부에겐 내적으로 인덕이 남다르며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것 같다. 방아거리를 맡기려는 동네방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명절 때가 아닌데도 식구가 방앗간에 가면 생각보다 늦게 옴을 볼 수 있다. 많이 밀려서 그랬다고 한다. 더러는 맡겨놓고 집에 와서 뭘 하다가 찾으러 갈 때도 있었고, 상황이 그러한지라 방앗간은 이웃을 보면 서로 담소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한 것 같다. 그런 중에 귀중한 생활정보를 얻거나 못 듣던 소식에 접하게 됨은 물론이었고….

그러던 집이 언젠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달랐다. 문이 딱 닫힌 채 내팽개쳐진 듯하고, 주인 없는 인상을 짙게 풍기며 방앗간도 돌리지 않고 손

놓아보였다. 궁금하던 차 식사를 할 때 식구에게 얘기를 꺼내봤다. 그러자 바깥양반이 폐암으로 며칠 전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이웃 누군가에게서 들었다며 확실한 말을 한다.

“아하! 그랬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비보였다. 그렇게 성실하고 모범적이어서 모두들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순간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퇴근할 때, 방앗간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에 먼빛으로 쳐다보기도 하였는데…。 그 때 가까이 다가가 무슨 말을 해보려다가 그만 그냥 지나쳐 말 한마디 못해본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다.

다른 한편으로, 그 곳의 대들보가 무너진듯해 보이기도 했다. 그 집 주변엔 많은 변화가 오겠다는 걱정 아닌 걱정이 일어도 왔다. 생각해 볼수록 무엇인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만 같았다. 우선 당장 주민들이 방아거리를 가지고 훨씬 더 먼 거리까지 가야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을의 큰 정자나무가 쓰러진 양 울적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방앗간을 하면서 화수회나 새마을 협의회 일도 보는지 그들에 대한 간판도 외벽에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반장이나 통장 일을 맡아 보기도 했으며, 언젠가는 쓰레기봉투도 팔고 있음을 안내해 뒀기도 했다. 그래서 선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공과 사를 구분하여 내 일처럼’ 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었다.

그러던 집이, 소리 없이 찾아든 불청객에 좌초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직감적으로 ‘무슨 사연이?’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비통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곳을 지나노라면 살뜰히 쌓여온 여러 여운에서인지, 때론 바깥양반

이 살아 있는 것만 같다. 어렴풋이 방앗간에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무슨 일로 어디를 가면서 보니까, 그 방앗간이 청소를 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업을 재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듣자하니 그 집 안양반이 혼자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안주인 아주머니가 참 장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감과 같이 하던 일을 혼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니!? 그토록 모든 걸 익혀두었음을 볼 때 놀랍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팔십대 고령이신데….

화분들도 절망상태에서 희망을 되찾은 듯하였다. 분갈이에 복을 주고 잘 정돈되어 남편 생존 시처럼 가꾸지기 시작하며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생사의 갈림길에서 슬픔을 딛고 일어선 인생의 굴곡진 역경과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그 인근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그 집이 쳐다보아지곤 하는 것이다. 삶의 허상과 실상이 떠올라 보이고 반추를 하게 되면서 말이다.

그런지 일 년여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다. 그 집 앞을 지나다보니까, 드나드는 문이 잠긴 채 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볼 일로 휴업을 하고 있지 않나? 했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았다. 잘 보살펴졌던 화분들도 손길이 끊긴 듯 하나하나 말라 시들거나 누가 건드리는지 망가지며 나뒹굴기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짐을 옮겨 간 것 같기도 하고. ‘세간 살이고 네간 살이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집 나간 신세를 보이며 세월은 매정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금하여 인근에 사는 어느 분에게 알아를 봤다. 그러자 웬지 걱정스럽고 어두운 표정을 먼저 지어 보인다. 그러더니 방앗간 아주머니가 치매로 심각할 정도란다는 말을 실토하듯 전해준다. 그리하여 올곧게 자라 잘 살고 있다는 자녀들이 모친을 모셔갔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 ‘노익장을 과시하듯 건강히 오래 살며 하시길 바랐는데...’ 서운한 마음에 앞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행여나 하는 심정에, 쾌유를 빌며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기대해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남매들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을 매각 처분하는 등 끝내 살림을 청산해가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그 후, 방앗간은 오랫동안 터를 다져올린 노부부의 애착심과 좋은 평판의 발로인지, 주민과 이용객들의 추억어린 화제가 되는가 하면, 앞날에 대한 염려의 이야기가 입과 입에서 무성히 나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한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곳을 지나면서 보니까, 애지중지 하던 그 가옥이 요란한 굴삭기 소리와 함께 헐리어 철거되고 있었다. 앞뒤 두 집을 털어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파에 휩쓸려간 삶의 무상함을 깊이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주위는 공허감이 감도는 듯 했다.

날이 갈수록 살아생전 그토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방앗간을 지키고, 자작자활(自作自活)의 의지를 다지며 곳곳이 살아온, 노부부의 참 모습이 더욱 애뜻하게 느껴지며 우러러보였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우리 동네의 작지만 반짝이던 큰 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창작수업  
학생대상

# 시

---

김정원  
신민섭  
신영빈  
이현정  
장은주  
허진영

## 그 時

김정원

언젠가 슬플 때 슬플 수 있기를  
비록 슬픔은 가장 약하지만,  
항상 슬픔은 가장 강한 것의 손을 잡고 움을,  
그리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음을,  
간절히 바라노니.

# 묵힌다는 것은 아니던가

김정원

감정을 하루 묵힌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던가  
할 말을 한 달 묵힌다는 것은 아린일이 아니던가  
만남을 한 해 묵힌다는 것은 쉼은 일이 아니던가  
사랑을 평생 묵힌다는 것은 끝끝내 한이 아니던가

# 한편시

신민섭

항상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는 법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정작 내가  
시작하고 끝이 나니  
너무나도 아파서  
울적한 마음에  
나 자신을 담아두고  
소금기의 투명한 물에  
감정을 담아  
미련 없이 버려보지만  
내보내려는 감정만 남고  
나머지가 흘러나가  
껍데기나 다름없는  
쓸모없는 나만 남았다.

이 슬픈 마음이

내 잘못과  
내가 처음으로 반한  
그녀 때문에 생겼다는게  
너무나도 싫다.

그래.

난 내가 싫다.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은  
오만방자한 생각  
난  
아직  
출발하지도  
않고  
너무  
멀다고  
징징대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래. 쓰레기.

그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상 최악의  
쓰레기...

# 인생을 팔기 좋은 계절 인생을 사기 좋은 계절

신민섭

인생은 쓰다. 너무 써서 달콤한 커피없이 살 수 없다.  
한손에는 달콤한 캔커피. 다른 한손에는 나의, 나만의 세  
계가 구현된 수십의 종이

내가 쓴 글자들에게서 나는 결단력의 향기.  
지우개의 흔적에서 들리는 후회의 소리.  
찢어버린 종이들의 좌절의 기억들이  
이 길고 긴 글이 되어, 날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내 인생은 달았다.  
어느샌가 내 인생을 팔았던 것이다.  
이번 계절에, 팔았던 인생을 되샀다.

정말,  
아주아주  
달았다.

# 양산은 아니다

신영빈

나는 우산을 들고 서있다 태양 아래서 내가 어릴적 너무  
나도 갖고 싶어 졸라땀던. 아버지 저는 언제쯤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누구나 갖게 된단다 그럼 아버지도  
우산을 갖고 있나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하였다 그럼 나도  
하나 갖고 있지 아버지의 것은 어떤 것 인가요 내 것은 비닐  
우산이었단다 투명하고 말끔한 하지만 언젠가 검정 칠을 해  
버렸지 에이 아깝게 아버지의 것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러  
니 나도 그렇단다. 나는 우산을 들고 서있다 나의 우산은 어  
떤 것인가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꺼내는 널따란 우산 이상  
한 눈길을 흘끗 받는 거꾸로 쓰는 우산 발그레한 얼굴을 덮  
는 우산 어린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우산.

## 유부 초밥

이현정

감옥에 죄수마냥 집에 갇혀 지낸지 3일째,  
엄마는 2살 어린 내 동생과 나를  
집에 가두고 일 하러 가셨다  
나는 동생과 이 답답한 집구석을 탈옥하기로 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부초밥 도시락을 싸고,  
5살 동생과 손 꼬옥 붙잡고 나선 길

빠앙- 빠앙- 차들이 세차게 지나가면서도  
나는 별 무섭지 않았다

엄마 도시락을 가져다 줄 생각에,  
엄마가 활짝 웃으며, 우리는 곰인형처럼 꼬옥-  
엄마 품에 안길 생각에 설레기만 했다

엄마 일 터에 도착하니 내 예상과는 달리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평평 우셨다  
많이 기뻐셨나보구나  
그리고 나는 그런 엄마를 조용히 안아드렸다

# 안녕

이현정

- ‘안녕, 잘 지냈어?’

여느 때처럼 그냥 스쳐지나가는 인사  
시끄럽고 산만한 공기 속 서린 웃음들

소란스러운 교실 앞과  
홀로 덩그러니 놓인 너의 맨 뒷자리  
몰랐었다 전에는, 너를

아무에게도 어울리지 못하는 너를 보고  
똑 똑, 네가 흘리는 눈물 속 나를 보았다

그동안 너는, 나에게  
‘도와줘’ 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나는 너의 어깨를 토닥이며  
포근한 인사를 건네었다

- ‘그래, 안녕 잘 지내보자’

## 그때 그 시절

장은주

창문 밖 비추는 달빛을 보며 우리의 지난 봄을  
생각해 벚꽃 흩날리는 그때 그 시절  
편지 하나에 웃음꽃 피던 그 시절  
서로를 비벼대던 그때 그 시절  
꽃핀 우리, 마치 내 마음 전해지듯  
달빛도 영롱히 빛이 나

나는 아직 그 기억 속을 발버둥 치고 있어  
다시 필 그때 그 버짐꽃처럼  
더는 무너지지 말고  
다시 무너지지도 말고

새싹처럼 같이 피자, 찬란했던 그때 그 버짐꽃처럼

# 생각한 너

장은주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너  
그때 그 밝음을 보지 못해  
서러웠던 나  
그리고 생각한 너

괜찮아, 아직 더디지만  
그때 그 시절 하나로 지금을 살아가

찬란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어슴푸레 네 곁을 걸어보는 나였다

# 헤진 주머니 안에 봄이 있다

허진영

봄은 혼자 있는 이에게 찾아온다  
봄은 마른 하늘을 보고 있는 이에게 다가오며  
봄은 나그네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라  
적적함도  
수반하는 절망도  
허우적대는 무기력도

봄에 대한 갈망에 보지 못한  
그리고 이상은 볼 수 없는  
구닥다리 외투 주머니 속  
봄을  
주섬주섬 꺼내 입으면 되겠다

# 먼지가 낀다는 것

허진영

숨 쉴틈 조차 없이  
바빠 돌아가는 세상에도  
오차 하나 없을 법한 기계에도  
이따금 돌아볼 때면  
먼지가 끼어있는 법  
나약한 인간의 심장에는  
얼마나 많은 때가 끼어있겠는가  
중한 것은  
쌓이는 것보다  
털어내는 것이라 하였으니

젊은이 너무 두려워 마시게  
후-  
불면 날아갈 먼지일뿐이니



창작수업  
학생대상

# 산문

신영빈

끝

신영빈

자욱이 깔린 안개가 일렁였다. 그것은 처음에 검은 그림자였으나 이내 뚜렷한 형상이 되었다. 형상은 곧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금빛 모래에 막힌 듯 덜컥 멈추었다. 고풍스러움과 낯음을 조금씩 지니고 있는 배였다. 안개가 뱃머리를 가렸을 때에는 군함 같기도 했고, 배꼬리를 가렸을 때에는 낯은 조각배 같기도 했다. 십자가가 그려진 누런 돛은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고, 선체에는 닳아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부조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선체를 밟고 있는 사내의 옷은 고급스러운 것 이었지만, 잔뜩 헐리고 물을 먹어 그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검붉은 얼룩이 묻은 칼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거칠게 잘려나간 수염과 깊게 패인 수많은 주름들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 되어 실핏줄이 서 있었고, 피부에 거뭇한 기미가 여럿 있어 매우 피곤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지만, 입꼬리만은 희미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모래가 배를 단단히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발을 지면에 내디뎠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땅에 서서 앞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개는 제힘을 잃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열은 조각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뒤를 보았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다. 수차례 시야를 바꾸어가던 그는 이내 칼을 떨어트리고 무릎을 꿇고 서, 땅에 연신 입을 맞추어댔다. 마침내 몸을 일으킨 그의 눈에서는 일종의 광기에 가까운 환희가 엿보였다. 그는 입술에 붙은 모래가루를 혀로 핥고는 앞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내는 잠시 후 푸른 초원을 뛰노는 양떼를 보았고, 이어 소년을 만날 수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과 흰 피부를 가진 소년은 새하얀 튜닉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읽는 중이었다. 사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다가갔다.

“애야, 어떻게 이런 곳에 있는 것이냐?”

소년은 잠시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책을 덮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말은,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사내를 멍뚱히 쳐다보았다. 소년의 입이 움찔거렸다. 사내와 소년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내의 눈이 소년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소년은 사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내의 눈에는 경계심이, 소년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사내는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다.

“나는 레반트에서 계시를 받아 위대한 모험을 시작하여 튀르크의 땅에서 머리 일곱 달린 용을 7일 밤낮을 싸워 쓰러뜨렸으며, 지브롤터에서 양의 뿔을 단 악마의 형상 666마리를 물리친 후 대양을 건너며 리바

이어दन을 죽이고, 신의 인도에 따라 산보다도 높은 파도와 바위도 깎을 비를 견디며 42일 동안 항해한 끝에 도달한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다.”

“험난한 여정이셨군요.”

“그래, 험난한 여정이었지.”

“그런데 왜 제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내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으나 입이 공허하게 움직이고 혀가 헛돌 뿐, 소리를 내뱉지는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의 여정이 하나 하나 지나가는 중이었다. 오래된 성지에서 발견한 석판과 계시, 울긋불긋한 용의 비늘, 비명이 가득했던 전쟁터와 검은 악마들, 바다를 자유로이 유영하며 포효하던 괴물의 이빨, 실 새 없이 몰아치는 비바람과 귀를 멍멍하게 했던 천둥, 눈을 잠시 멀게 했던 번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바다의 안개. 그리고 항상 그의 길에 흩뿌려졌던 피와 철.

지금 사내의 눈앞에 보이는 넓은 초원과 드문드문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몸을 가볍게 스쳐 가는 바람과 따스한 햇볕, 그의 앞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책을 보고 있던 소년. 사내는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두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둘은 그의 삶에서는 명확히 이어져 있었으나 그가 아닌 이들의 삶에서는 분리되어 있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침을 삼켰다. 그가 아무 말도 않자 소년이 입을 열었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던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지옥조차도 사람이 있는걸요.”

사내는 사람이 없는 지옥을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지옥은 분명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다. 그는 이 말을 하려다, 상대가 아직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속으로 옥여넣었다.

사내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모험을 떠난 이유이자 그의 목적에 대해서였다. 소년은 이곳에 살고 있으니 -만약 이곳이 그가 도착해야 할 곳이 맞다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었다.

“애야, 혹시 성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니?”

“성배? 아저씨도 그걸 찾으러 온 건가요?”

사내는 몸이 뻗뻗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신의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의 모험은 성스러운 것이었으며, 선택받은 것이었다.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사내는 자신이 갖고 있던 ‘특별함’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곱씹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이곳에 온 사람이 나 말고 더 있다는 말이냐?”

“마젤란, 다 가마, 콜럼버스, 새클턴이 왔었죠.”

“처음 듣는 이름뿐 이구나.”

“나중에는 아저씨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배를 가져간 거니?”

“글쎄요. 적어도 누가 뭘 가져갔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사내는 한숨을 푹 쉬었다. 그의 여정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 왔던 이들은 이곳에 성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던 것 같았다. 그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고, 자부심 또한 지킬 수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는 깍지를 낀 손을 머리 가까이에 두고 잠시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다. 다시 눈을 뜬 그의 눈에서는 강렬한 의지가 엿보였다.

“얘기를 들어보니 성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구나. 혹시 나에게 성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니? 사례는 충분히 하마.”

소년은 사내의 얼굴을 뚫히 쳐다보았다. 사내는 소년의 시선에, 자신의 모든 것이 날날이 파헤쳐지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사내의 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먼 길을, 힘겨운 모험을 겪으며 거쳐 온 그가, 소년에게 사례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소년은 분명 그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사내는 잠시 들떠있었던 그와, 그의 실수를 자책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소년에게서 부정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저씨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년은 그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게냐?”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거든요. 성배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데려가라, 라고.”

사내의 눈썹 하나가 치켜 올라갔다. 질문의 주체가 소년에서 아버지로 바뀌었을 뿐,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탓 때문이다. 그러나 사내는 단지 여행 동안 그를 돌보았던 존재가 그를 위해 예비해 놓은 장치이겠거니 생각했다. 그의 여행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소년에게 안내를 맡겼다. 어서 기나긴 모험의 끝을 보고 싶었다.

사내는 자신의 생각보다 먼 길을 걸어가야 했다. 옷의 물기는 마른지 오래였다. 잘 닦인 길을 평온하게 가는 것은, 의외로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모험보다도 힘들었다. 흥분과 기대 탓인 것 같기도 했고, 피로가 누적된 탓인 것 같기도 했다. 어찌 됐든 그는 힘을 내기 위한 조금의 자극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는 소년과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애야, 이곳은 어디니?”

“낙원이죠, 양들의.”

상태가 좋아 보이는 풀이 깔린 넓은 초원과 그 옆을 흐르는 강, 온화

한 기후. 확실히 이곳은 양들이 지내기에 좋은 장소였다. 양들은 포식자에게 먹힐까 전전긍긍하는 대신 온종일 느긋하게 풀을 뜯고 가끔 들판을 경중경중 뛰어다니다 밤이 되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될 터였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자도 될 것이다. 소년이 양을 거의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소년은 양치기로군,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다음 그는 소년에게 질문, 예컨대 마을의 이름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양들의 관리에 대한 것들을 여러 번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호한 대답과 웃음뿐 이었다. 그는 어색한 침묵에 잠시 짜증이 났으나, 다행히도 이번 침묵의 시간은 짧았다.

“여기예요.”

소년의 말과 동시에 사내의 눈이 크게 커졌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높이는 사내의 다섯 배는 되어 보였고, 둘레는 성인 세 명이 팔을 벌려도 껴안지 못할 것 같았다. 겉으로 드러난 뿌리조차도 가장 얇은 것이 사내의 팔뚝만 했다. 넓게 뻗은 가지에서 자란, 주변의 풀보다 더 푸른 이파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아주 단순한 모습은, 그럼에도 무한한 감동을 주었다. 사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져 안식처 같았다. 성스러운 느낌마저도 있었다. 사내는 만약 자신이 처음 본 것이 소년이 아니라 이 나무였다면, 분명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나무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이곳은 그의 기대에 부합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는 성배를 원했고, 성배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실 옛 교회나 버려진 성터를 기대했었다. 그의 인식 내에서 성배가 있을 만한 곳은 그곳 외에는 없었다.

“성배는 이곳에 있는 거니?”

“지금 아버지 곁에 있어요. 분명해요.”

사내는 한숨을 푹 쉬고는 나무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소년의 말대로라면,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나무가 훨씬 거대해 보였다. 그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나무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웅이구멍은 없었다. 하기가 성배를 숨기는데 웅이구멍이라니, 너무 허술하다. 혹시 구멍을 파놓고 껍질을 덮어둔 것은 아닐까? 그는 이곳저곳을 만져보았지만, 단단하고 거칠한 느낌만 들 뿐이었다. 땅에 묻어둔 것은 아닐까 싶어 맨손으로 주위를 파기도 했다. 흙이 꽤나 부드러워 퍽 잘 파였으나 몇 시간 후, 그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애야, 혹시 아버지가 더 말씀하신 건 없는 게냐?”

“없어요. 여기 데려오라는 말 밖에 안 하셨어요.”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승 같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내는 소년의 말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성배를 바라지는 않았다. 물론 그것을 목표로 했고, 또 끝에 와서는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두근거리기는 했으나, 그는 성배의 흔적만으로도 만족했을 사람이었다. 빈 상자, 낡은 천 조각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는 매우 만족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그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보았다. 소년은 그런 그를 말없이 보았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는 허탈함과 개운함이 엿보였다.

“고마웠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

“이제 떠날 건가요?”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소년은 여전히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년은 이제 연민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좀 더 쉬다 가지 않을래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집에 많은 양이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마침 시원한 그늘도 있고.”

“난 매우 지쳤지만, 집에 돌아갈 수는 있단다.”

“양들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내 양은 정말 많아요. 이런 수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들 거예요.”

“애야, 정말 고맙지만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구나. 집이 그리워.”

사내의 말은 단호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머리는 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사내는 헛웃음을 쳤다. 우울함에 폭 젖은 그에게 집은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거 받아요.”

소년이 사내에게 자루를 던졌다. 사내는 당황했지만 안정적으로 받았다. 자루는 무거웠다. 굵은 실을 엮어 만든 듯 한 자루는 여기저기 홀이 묻어있었고, 각진 무언가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우스꽝스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사내는 자루를 열어보았다. 반짝거리는 점이 여럿 있었다. 금화였다. 사내의 눈이 커졌다. 사내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까 주웠어요. 아저씨가 땅을 파고 있을 때. 너무 열중했는지 이걸 못 보더라고요.”

“나는 이게 필요 없어. 이게 필요한 사람은 너인 것 같구나.”

“아뇨, 이건 아저씨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져야죠.”

소년의 눈은 아까의 사내의 말보다 더 단호했다. 사내는 금화를 받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또 실제로 그 보다는 소년에게 더 필요한 듯 보였

으나, 왜인지 그는 소년의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소년이 품고 있는 분위기 때문인 듯 했다.

사내는 자루를 움켜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걸음을 옮길수록, 몸이 가벼워져, 순식간에 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안개는 깨끗하게 걷혀있었다. 그가 떨어뜨린 칼과 낚은 배가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에 소년이 보였다. 매우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도 손을 흔들어 답을 해주었다.

사내는 칼을 주워들고, 배를 바다로 힘껏 밀었다. 모래가 부드러워서 인지 쉽게 밀렸다. 그는 배에 올라탔고, 항해를 시작했다.

그는 자루를 보았다. 긴 여정의 끝에서 얻은 전리품이었다.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목표했던 것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었지만, 보상이었다. 그는 소년의 따뜻한 마음에,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사랑에 감사를 느꼈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가 가득 끼어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영원의 보물을 얻을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릿속에는 소년이 가득했다.

대전대학교  
문학기행관

# 기행문

채동선

# 무지렁이의 문학기행

채동선

대전문화관에서 문학기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나는 출발 하루 전에야 알았다. 내가 속한 문학회의 단톡방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공지 때문인데, 평소 문학기행에 목말라 있던 터라 나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문학관 홈페이지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그마한 활자 하나가 무슨 죄 지은 놈처럼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마감이 지났어도 한참이나 지났음을 껏속 말로 남기고 사라진다.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린 나는 알음을 통한 수차례의 옆차기 끝에 결국 예정된 버스의 남은 빈자리에 승차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당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설렘으로 부풀어야 할 할 가슴엔 먹구름이 자욱했고 나는 체념한 채로 젖은 발걸음을 문학관으로 향했다. 우중에도 신청자 전원이 참석을 했다고 한다. 참 못 말리는 분들이라 생각하며 버스에 올랐는데 문학이란 동질감으로 서로 간의 어색함은 애초부

터 없는 듯 했다.

동구 가양동에 있는 박팽년 선생의 유허비를 시작으로 해서 인근의 우암사적공원, 정훈 시인의 집터, 이재복 시인이 말년을 유했던 자리, 박용래 시인의 청시사터 그리고 보문산 사정공원을 둘러보고 단재 신재호 선생의 생가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코스였다.

인솔자이신 박현오 시인의 유머를 곁들인 명쾌한 해설에 시젧바늘은 넋을 잃어 매번 헛돌았고 날씨에 맞춘 듯 한 따끈한 뼈다귀해장국 점심 한 그릇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안겨주었다.

내게는 나와 한 시기를 겹쳐 사셨던 세 분 시인의 흔적이 새롭게 다가왔다. 충청시단의 선구자로 향토문학의 초석을 놓으신 정훈(1911~1992) 선생, 교육자로 종교인으로 또 시인으로 한 생을 사셨던 금당 이재복(1918~1991) 선생, 평생 그리움의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대표적 향토시인 박용래(1925~1980) 선생, 단편적으로만 알았던 선배 문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들의 투철한 삶과 맹목을 초월한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하고 지켜야 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배 시인들의 집터조차 알지 못했던 후학으로서의 무관심에 대한 죄스러움에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다.

인생의 황금기를 포함한 40년을 훌쩍 넘게 대전에서 살아와 누구보다 더 대전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는데 아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시인의 삶을 알아야만 시가 보인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다시금 되뇌며 내 마음에 비를 적서 묵은 때를 벗겨낸 쾌청한 하루였다.

## 2018 대전문학관 문학교육 프로그램 작품집

발행일 2018년 12월 15일

발행인 박만우

편집인 박진용

편집장 이종문

진행 배현진

협조 권용관 박근혜

디자인 도서출판 심지

발행처 (재)대전문화재단 대전문학관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16

전 화 042)626-5022 팩 스 042)621-5023

홈페이지 <http://www.dl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DaejeonLC](http://www.facebook.com/DaejeonLC)

ISBN 979-11-965167-2-7 03800